

# 양육 길라잡이

발달장애 - 양육기술

# 양육 길라잡이

발달장애 - 양육기술

## 일러두기

- ★ 장애영유아 양육 가이드북은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2권은 발달장애, 제 3·4·5권은 각각 시각·청각·지체장애(뇌병변장애), 제 6권은 공통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서 발달장애는 주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발달지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 ★ 지체장애 편에서는 주로 뇌병변장애 영유아를 다루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서 장애영유아(0세부터 만 5세까지)는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그리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장애위험을 지니고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 5세 이상이지만 현재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 내용 중에는 학계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서 사용된 용어는 각 장애 영역 혹은 집필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려 합니다.

장애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양육 초기 단계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 정보가 초기 장애를 개선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애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양육 초기단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초점을 둔 자료는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의 부모들은 장애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어 혼란을 겪는 시기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자료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은 ‘양육’과 ‘부모’, ‘양육 초기단계’에 초점을 두고 본 가이드북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부모님들의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장애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 단계에 집중하여 ‘부모님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휴대하기 편한 모양의 가이드북이어야 했습니다.

완성된 가이드북은 총 6권으로, 제1권 발달장애-양육지식·정보, 제2권은 발달장애-양육기술, 제3권 시각장애, 제4권 청각장애, 제5권 지적장애, 제6권 공통-가족지원입니다. 각 권은 자녀의 발달단계와 장애영역에 따라 양육 정보 및 기술, 교육·심리, 의료·복지서비스, 학부모 네트워크 정보 등의 폭넓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 지원 사업은 이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향후 발전된 모습의 후속 가이드북이 속속 개발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가이드북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드리는 좋은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자라는 데 유용한 양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사랑을 실천하며, 현장중심에서 부모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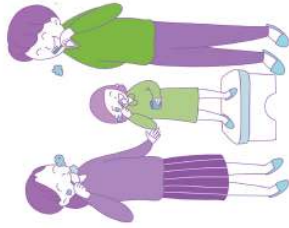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국립특수교육원장 우이규

## 01

\*

### 건강관리



- 12 1. 우리 아이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 20 2. 우리 아이 영양관리
- 22 3. 우리 아이 식습관 관리  
및 지도

## 02

\*

### 의사소통



- 30 1. 어휘 및 의사소통 발달 촉진
- 43 2. 대안적 의사소통 지원

## 03

\*

### 교육지원



- 54 1. 유아 교육기관 취학 준비
- 61 2.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
- 65 3. 초등학교 취학 준비
- 67 4. 또래와 함께 생활하기

## 04

\*

### 행동지원



- 76 1. 행동의 기능
- 78 2. 문제행동 중재 방법
- 82 3. 문제행동 대처하기
- 88 4. 바람직한 훈육 방법

## 05

### \* 일상생활



- 94 1. 배변습관 기르기
- 101 2. 착탈의 습관 기르기
- 108 3. 가정 내 놀이 환경 꾸미기
- 111 4. 놀이할 때  
다루기 어려운 행동
- 113 5. 안전한 놀이 환경 꾸미기

## 06

### \* 권리옹호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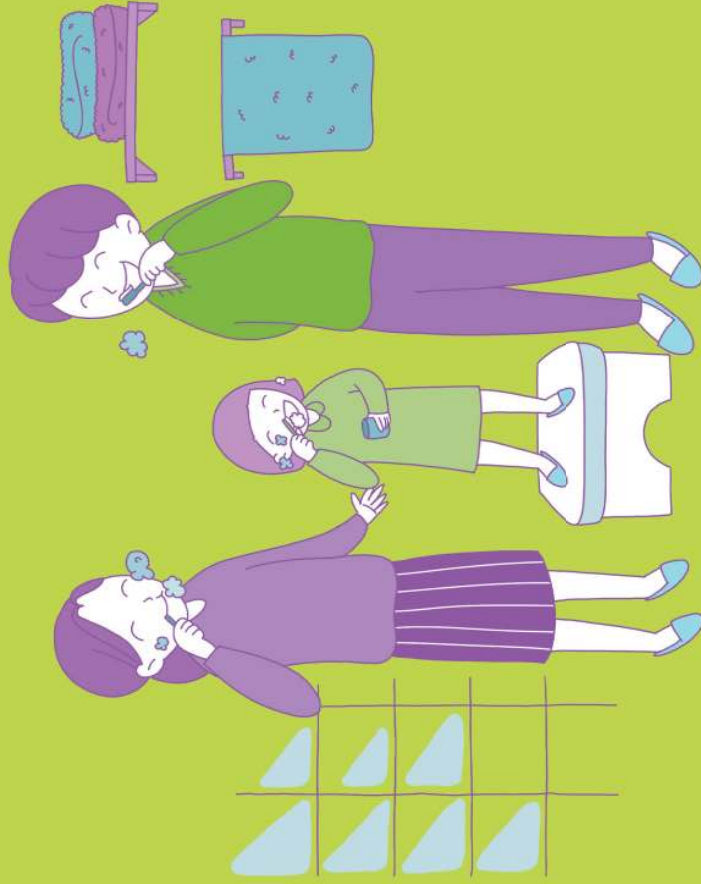


- 118 1.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 124 2.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 01

## Part

### 건강관리



우리 아이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12p

우리 아이  
영양관리

20p

우리 아이  
식습관 관리  
및 지도

22p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은 아이가 대견하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갑자기 닥치는 응급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발달의 어려움 때문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예방접종, 구강관리, 수면습관 및 영양관리 등과 같은 건강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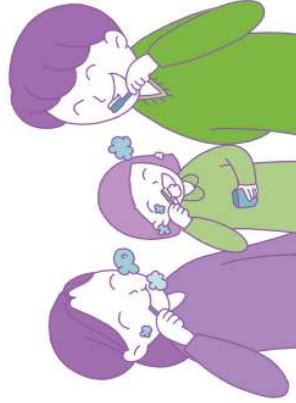
노출되어 뇌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은 국가가 정한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달장애 및 발달지체 영유아 예방접종의 원칙은 일반적인 예방접종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되 주기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영유아의 일반적인 예방접종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16년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소아용)

| 대상<br>전염병             | 백신종류<br>및 방법                 | 0<br>개<br>월 | 1<br>개<br>월 | 2<br>개<br>월 | 4<br>개<br>월 | 6<br>개<br>월 | 12<br>개<br>월 | 15<br>개<br>월 | 18<br>개<br>월 | 24<br>개<br>월 | 36<br>개<br>월 | 만<br>4<br>세 | 만<br>6<br>세 | 만<br>11<br>세 | 만<br>12<br>세 |
|-----------------------|------------------------------|-------------|-------------|-------------|-------------|-------------|--------------|--------------|--------------|--------------|--------------|-------------|-------------|--------------|--------------|
| 결핵                    | BCG(피내용)                     | 1회          |             |             |             |             |              |              |              |              |              |             |             |              |              |
| B형간염                  | HepB                         | 1차          | 2차          |             |             | 3차          |              |              |              |              |              |             |             |              |              |
| 디프테리아,<br>파상풍,<br>백일해 | DTap                         |             | 1차          | 2차          | 3차          |             |              | 추4차          |              |              |              | 추5차         |             |              |              |
|                       | Td / Tdap                    |             |             |             |             |             |              |              |              |              |              |             |             |              |              |
| 폴리오                   | IPV                          |             | 1차          | 2차          | 3차          |             |              |              |              |              |              |             |             |              |              |
| b형 헤모필루스,<br>인플루엔자    | PRP-T / HibOC                |             | 1차          | 2차          | 3차          |             | 추4차          |              |              |              |              | 추4차         |             |              |              |
| 폐렴구균                  | PCV(단백결합)<br>PPSV(다당질)       |             | 1차          | 2차          | 3차          |             | 추4차          |              |              |              |              |             |             |              |              |
| 홍역, 풍진,<br>유행성이하선염    | MMR                          |             |             |             |             |             | 1차           |              |              |              |              |             | 2차          |              |              |
| 수두                    | Var                          |             |             |             |             |             | 1회           |              |              |              |              |             |             |              |              |
| A형간염                  | HepA                         |             |             |             |             |             |              | 1~2차         |              |              |              |             |             |              |              |
| 일본뇌염                  | JC(불활성화 백신)<br>JE(약독화 생백신)   |             |             |             |             |             |              | 1~3차         |              |              |              | 추4차         |             |              | 추5차          |
| 사람유두종<br>바이러스         | HPV4(기다실) /<br>HPV2(서바릭스)    |             |             |             |             |             |              | 1~2차         |              |              |              |             |             |              | 1~2차         |
| 인플루엔자                 | Flu(불활성화 백신)<br>Flu(약독화 생백신) |             |             |             |             |             |              | 매년접종         |              |              |              | 매년접종        |             |              |              |
| 결핵                    | BCG(피내용)                     | 1회          |             |             |             |             |              |              |              |              |              |             |             |              |              |
| 로타바이러스                | RV1(로타릭스)<br>RV5(로타텍)        |             | 1차          | 2차          |             |             |              |              |              |              |              |             |             |              |              |

출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



## 1. 우리 아이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 1 예방접종은 꼭 받도록 합니다.

지난 십수 년간 학계에서 MMR(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 접종이 자폐성 장애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역학조사,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 아동의 동생들 중 MMR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들에게서 자폐성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 등을 통해서 예방접종이 자폐성장애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이제는 편견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처음으로 예방접종이 자폐성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논문은 과학계에서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우려와 걱정 때문에 MMR 1차 접종 시기를 놓친 탓에 어린 영아 때에 전지기 어려운 홍역이나 풍진에

## ② 우리 아이 구강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 영유아의 구강관리

치아가 한 개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거즈나 구강용 티슈를 이용하여 잇몸과 혀, 입천장에 남아 있는 분유나 모유 찌꺼기를 닦아내도록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세균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세심한 구강관리가 필요하답니다.

만 2세까지의 유아는 소아용 칫솔을 이용해 치약 없이 닦아주며, 빨대나 아닌 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치질을 뱉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칫솔질은 식사 후나 간식 후 해야 하지만 잠자기 전에 깨끗이 닦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아이와 함께 이를 닦아 부모의 이 닦는 모습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따라 하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닦는 행위가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취학 전 구강관리

#### \* 정기검진 (최소 40개월, 만 2세 적당)

아이가 특별한 치과적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늦어도 만 2세경에는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하는 것이 충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주기적인 검진(아동의 경우 3~4개월 단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3개월이면 충치 발생에서 신경까지의 침범이 가능한 기간이므로 이미 치료받은 치아라도 방심하지 말고 3개월에 한 번 가벼운 치과 정기 검진을 꼭 받도록 합니다.

#### \* 불소도포

불소는 충치에 강한 치아 결정 구조를 만들며, 구강 내 세균이 산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불소도포는 정기적(3~6개월)으로 시행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치아 홈 메우기

어금니의 씹는 면에는 좁고 가느다란 홈이 파여 있어서 음식물이나 치태(프라그)가 잘 끼고 칫솔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위를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치과용



치아 홈 메우기 전과 후  
출처: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치과  
보호자 안내책

재료로 메워주는 것을 치아 홈 메우기 또는 실란트라 하며, 어금니 씹는 면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통해 깨지거나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지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치약

두 돌 이전에는 치약 없이 칫솔로만 치아를 닦거나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됩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양치질을 뱉는 연습을 시키고 치약을 삼키지 않게 되면 사용됩니다.

#### \* 올바른 칫솔질 습관

대개의 지적장애 아동들은 칫솔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칫솔을 구강에 대지만 해도 칫솔질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칫솔을 물어뜯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칫솔질 동작과 함께 큰 목소리로 칫솔질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이를 닦아주도록 합니다.



8세 이전의 아이들이 직접 칫솔질을 할 때는 모원법(치아를 등글게 돌리듯이 이를 닦는 방법)을 사용하며, 보호자가 이를 닦을 때에는 회전법(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 내리면서 닦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칫솔질은 식후, 간식 후, 잠자기 전에 실시합니다.

- 전국 장애인 치과진료망([www.smilefund.org](http://www.smilefund.org)): 전국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황 확인 가능
- 구강보건 교육자료([www.ch-dental.co.kr](http://www.ch-dental.co.kr)): 폭넓은 구강 교육 자료 수록

### ③ 우리 아이 수면습관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발달장애 및 발달지체 영유아의 수면 어려움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 부모님들은 수면 문제보다는 다른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셔서 수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미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가족들의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올바른 수면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면습관 훈련방법

발달장애 및 발달지체 영유아는 종종 수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특히 잠들 때와 깨어 있을 때, 자주 깨다고 호소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수면 장애를 갖게 되면 아동은 물론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낮 시간 동안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질문있어요

##### 발달장애 아동에서 수면장애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흔히 나쁜 수면습관이 있고, 그 외에 주변 환경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 자기조절의 어려움 등 발달장애의 속성과 관련한 요인, 그 외에 신체적인 어려움(변비, 통증 등), 잠드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복적인 생각이나 집착 행동들, 복용하는 약 효과 혹은 부작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취침시간 일과 만들기

- 취침시간 전 30분을 규칙적인 일과로 만들기
- 수면을 위한 옷 갈아입기, 씻기, 그림책 읽기와 같은 활동을 포함시키기
- 활동의 순서와 시간을 매일 밤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기
- 이 시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자제하기
- 취침시간 일과 시간 지키기
-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가족에게 맞는 취침 일과 만들기

#### \*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수면시간을 알아보도록 해요.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3~5세가 되면 하루에 잠은 낮잠 포함 10~13시간 자게 되고, 6~12세에는 하루 9~12시간 잠을 자게 됩니다. 밤에 잠을 일찍 재우기 위해서는 오후 4시 이후에 낮잠을 재우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 \* 우리 아이에게 낮잠이 필요할까요?

낮잠 요구 시간은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3세와 6세 사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이상 낮잠이 필요 없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잠깐 낮잠을 자도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지거나 일찍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낮잠이 수면을 방해한다면 낮잠을 줄일 시기가 된 것입니다.

#### \* 야경증과 같은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야경증은 보통 외마디 비명으로 시작하는데, 비명과 함께 아이는 매우 당황하며 보호자가 빨리 뛰고 땀을 흘립니다. 야경증은 악몽과는 다른데 차이점 중의 하나는 도중에 아이를 달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경증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를 안으면 대부분의 아이는 부모를 밀치고 기분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상당히 힘듭니다. 다행히 아이는 이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면 보통 다시 잠이 들어 힘들었던 그 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 수면 검사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서울권         |          | 수도권 외 기타 지역 |               |
|-------------|----------|-------------|---------------|
| 대학병원 명단     | 특이사항     | 대학병원 명단     | 특이사항          |
| 서울대학교병원     | 수면장애     |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 수면센터          |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수면장애 클리닉 | 분당 차병원      | 수면장애 클리닉      |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수면 클리닉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수면 및 기억장애 클리닉 |
| 서울아산병원      | 수면장애     | 강원대학교병원     | 수면 특수 클리닉     |
| 삼성서울병원      | 수면장애 클리닉 |             |               |

## 음식물 기도 막음

기침을 하거나 의사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영아의 경우 신 습소리, 신 울음소리나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창색증이 보이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엄마는 일단 침착해야 합니다. 엄마가 당황하면 아이는 더 위험해 집니다. 아이들은 한번 숨이 막히면 답답하니까 자꾸 숨을 들이마셔서 막힌 것이 더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숨 막혀하면 우선 입을 들어다봐서 막고 있는 것이 보이고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면 바로 끄집어 내십시오. 그러나 좀 깊어 있는 것은 꺼내려다 잘 못하면 숨을 더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물질을 꺼내지 못했을 때 응급처치 요령! &lt;하임리히법&gt;

이물질을 꺼내지 못했을 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응급처치법을 아이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 • 2세 미만의 영아(10kg 이하)

2세 미만의 영아는 복부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왼쪽 허벅지 위에 아이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엎드려 놓고 손 바닥으로 등을 5회 두드리 후, 반대쪽 허벅지로 아이 얼굴이 하늘을 향하게 다시 뒤집어 가슴 중앙을 손가락 두개로 5회 눌러줍니다.

## • 돌이후의 영유아(10kg 이상)

아이를 뒤로 안듯이 잡고 한 쪽 손바닥을 배꼽과 흉곽(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골격)의 기운데에 두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다음 복부를 차올리듯이 압박합니다. 이때 잘 못 하면 아이의 간이나 뼈가 상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돌 이후의 영유아(10kg 이상)  
하임리히법

## 질문 있어요

## 뇌전증(대발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작이 있을 시에는 부모를 안심시키고 질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를 옆으로 놓아 적절하게 기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편평한 바닥에 아이를 놓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후, 이물질이 입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시계를 보고 시간을 재고, 사정이 허락되면 이름 등 반응을 주면서 동영상을 찍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실제 발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련은 수분 안에 멈추지만 경련이 3~5분 지속되거나 연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119 전화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처치(주사제 투여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합니다.



입안의 내용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고개를 돌려주고,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1 2  
4 3



3분 이상 경기가 계속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깁니다.



손을 떼다가나, 시계를 주무르는 행위는  
실제로 경기를 억제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2. 우리 아이 영양관리

먹기는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식사를 하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기는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발달을 이루는 토대를 제공해줍니다. 함께 식사하는 구성원과 분위기는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정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아이가 받게 되면 음식을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 ❶ 중요한 영유아 영양공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끓음마기 영유아>

- 다양한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 팥콩, 진포도 등 크기가 작은 것은 3세 미만에서는 기도로 흡인될 위험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 적은 양을 주고 더 먹고 싶어하면 더 줍니다.
- 식사와 간식에 대해 규칙적인 스케줄을 만듭니다.
- 영유아가 새로운 음식에 대해 적응하는데 7~10회 정도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음식은 영유아가 맛을 보거나 먹기 전에 적은 양을 여러 번씩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이유기 때 제공되는 음식에 따라 영유아의 선호하는 맛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가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단맛보다는 다양한 맛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식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시기 영유아들이 운다고 좋아하는 음식만을 주는 것은 다양한 맛 경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편안한 의자나 영유아 키에 맞는 작은 밥상을 준비합니다.
- 긍정적이고 즐거운 보상을 하여 먹는 것을 즐겁게 느끼게 합니다.

- 음식물을 상이나 벌 또는 강화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구강 기능에 따라서 씹어야 하는 음식(질긴 음식 등)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음식 맛의 선호도가 아니니 영유아의 발달 기능에 따라서(구강 발달 포함) 음식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 <2~5세 영유아>

- 우유는 2~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중요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 우유나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철분 함유량이 높은 다른 중요한 음식물에 대한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우유는 하루에 2컵, 탄산이나 당이 첨가된 음료는 안 주어도 됩니다. 과일음 주스보다는 연령에 맞게 과일 자체를 주도록 합니다.
- 다양한 식사를 하고 있는 학령전기 영유아에게는 비타민 D 정도만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그 외의 비타민 보충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 소금은 아주 적게 사용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듭니다.
- 목이 마를 때는 음료나 우유보다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 움직임이 많은 영유아는 조금 더 먹고, 움직임이 적은 영유아(침대 생활을 하는 영유아 등)는 조금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 발달지체 영유아의 비만 예방 방법

영아기에 옳고 보잘 때마다 우유를 주게 되면 아이는 갈증이 생길 때마다 음식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유 초기에 고열량의 이유기 보충식을 준다며 체중이 빨리 증가하고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나이에 따른 식사량보다는 개별적인 활동량에 따른 식사량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인 움직임을 거의 없는 발달지체 영유아에 게 나이에 따른 식사량을 제공한다면 비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 3. 우리 아이 식습관 관리 및 지도

발달지연이나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음식물의 섭취능력과 기술이 비장애영유아의 일반적인 발달속도보다 뒤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적절한 영양섭취가 힘든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식습관 관리 및 지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식습관 관리, 이렇게 해 주세요.

장애영유아에게 음식 먹이기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적 원칙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말을 될 수 있는대로 아끼기

부모님들은 식사시간 동안 아이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삼가야 합니다. 부모가 1분에 10번도 넘게 많은 지시를 내리면 아이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간단명료하게 지시를 내리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려면 오히려 식사시간보다는 식사시간 전에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맛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아동이 식사에 대해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 ② 알맞을 때 적절한 관심을 주기

울기, 떼쓰기, 투덜대기, 구역질하기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은 가능한 한 무시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식기와 냅킨을 바르게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식사행동은 칭찬해 줍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간청하거나, 애원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격려하는 몇 마디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 ③ 아이와 식사전쟁을 피하기

식사시간 동안 아이와 다투지 말고 조용히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아이의 식사문제에 덜 반응할수록 아이는 문제행동을 덜 보입니다. 식사시간 동안의 부정적인 태도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먹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데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 ④ 모델링(보고 배우는 관찰학습)을 이용하기

아동의 과일 및 채소 섭취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식사시간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 줘서 아동이 모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⑤ 식사습관 기르기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고, 매끼마다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며, 가족끼리 밥을 먹는 것이 좋지만 예민한 경우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장소에 있는 다른 물건들도 아동에게 식사시간을 알려 주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같은 종류의 턱받이, 컵, 그릇, 식기를 사용해서 아동이 이러한 물건을 식사와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있어요

#### 우리아이는 식사시간에 잘 앉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통 및 목 근육의 긴장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똑바르게 앉아서 머리를 가누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이가 근육 긴장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아이에게 특수치료가 필요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동작 운동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높은 의자나 보조의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동들이 앉아서 먹기 힘들어하는 경우, 보통의 부모들도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먹이거나 텔레비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동이 좀 더 잘 먹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같은 방법은 식사에 집중도를 다른 자극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맛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식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청각적인 자극(동요, 이야기 테이프)을 이용해 먹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② 식습관 문제,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자폐성장애 아동의 경우, 감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식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맛,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질감 이외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음식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각적인 부분이 과민하다면 이 부분을 둔감화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 1)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고 도망가지 못하게 끝까지 기다리는 회피 방지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고 떼를 쓰거나 자해를 하고, 기타 다른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행동은 회피 방지법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아이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 \* 뱉는 행동에 대한 대처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는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토하거나 뱉어버리는 행동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럴때는 음식이나 음료수의 양을 줄여서 아이가 삼키기 쉽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 \* 다시 제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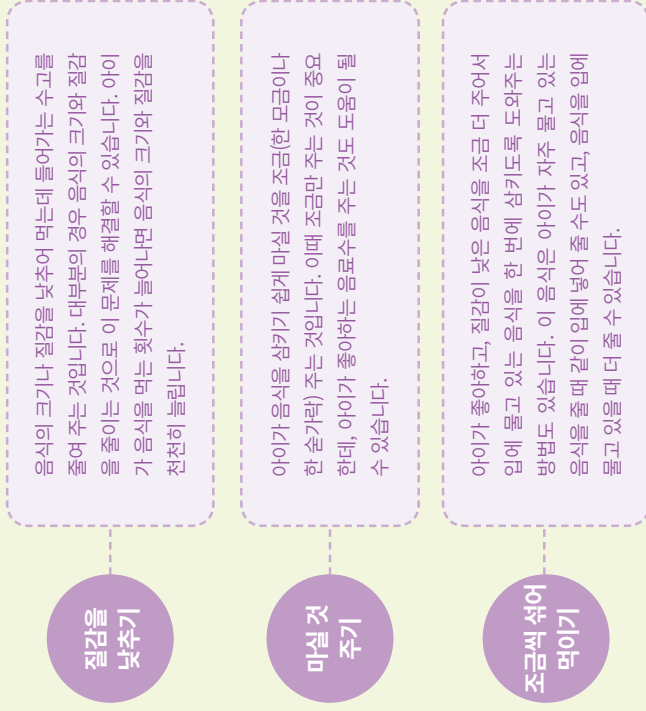
아이가 뱉은 음식을 다시 입 안에 넣어 주는 것인데 아이가 음식을 뱉을 때마다 다시 입에 넣어 줌으로써 음식을 뱉어도 결국 먹어야 함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한 숟가락 주고 나서 숟가락을 아이의 아랫입술에 대고 아이가 뱉는 음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뱉은 음식을 다시 입에 넣어 줍니다. 아이가 음식을 삼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뱉은 음식을 다시 주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면 같은 음식을 같은 양만큼 다시 줍니다.



### 음식물을 씹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강 운동 치료, 구강 운동 촉진 기술 치료 등의 방법으로 씹기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 조절 및 목, 머리의 조절은 구강 근육 협응에 영향을 줍니다. 씹기는 적절한 치료 도구나 풀기 쉬운 음식을 거즈 등에 싸서 연습할 수 있으며,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부터 먼저 연습하도록 하고 잘 부셔지는 음식(비스킷류, 밥알, 질긴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오랫동안 머금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 종이, 실, 머리카락 등을 먹는 아이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식증은 음식이 아닌 것을 반복적으로 먹는 것으로 음식이 아닌 것에는 종이, 실, 머리카락, 치약, 모래, 종이, 고무밴드, 삼푸, 장난감(베고 등)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폐성장애를 가진 영유아에서는 흔한 문제인데 어떤 아동들은 재빨리 이러한 물건들을 삼키기도 하고, 입에 넣고 있거나 하고 가끔 삼킬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18개월이 되어서는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식증이 있는 아동들은 18개월 이후에도 계속 음식이 아닌 것들을 먹거나 삼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 이식증은 왜 문제가 될까요?

음식이 아닌 것들을 많은 양 먹었을 때는 위가 막힐 수 있고 유라나 고무 같은 물건들은 위장관에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납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먹은 경우에는 혈중 납농도가 올라갈 수 있으며 또 다른 건강 문제로는 영양의 문제, 독성, 감염, 치아손상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 아동들은 왜 이식증을 보이는 것일까요?

관심을 얻고자 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 어려운 언어발달 지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감각적인 추구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식증이 있는 아동들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이 아닌 것들을 먹게 됩니다.



### 이식증이 있는 아동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들이 먹거나 입안에 넣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리스트를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알려주기
- 아이들이 이식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기록하기
-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지 기록하기
- 이식하는 것들을 자녀들의 시야에서 두지 말고 열쇠가 있는 상자 안에 넣어두기
- 아동들이 이식 행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좋아하는 활동환경 제공하기

## 3) 식사 보조도구의 활용 방법

손잡이가 달린 숟가락이나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컵과 같은 보조도구는 아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손잡이가 달린 컵을 사용하면 아이가 보다 쉽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쏟는 일이 줄어듭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보조도구를 소개하는 책자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보조식기, 컵, 그릇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컵프:** 손 근육에 힘이 없거나 잡기 어려운 아동에게 컵프 벨트를 사용하여 수저나 포크 등을 고정시킬 수 있는 식사 보조도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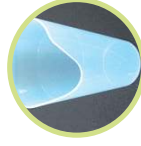
**휘어진 스푼:** 관절 가동 범위가 부족하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식사 보조도구입니다.



**미끄럼 방지 그릇:** 한 쪽 벽이 높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판으로 고정되어 있어 한 손으로 먹어야 하거나 잘 흘리는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식사 보조도구입니다.



**기울려진 그릇:** 칸이 나뉘어 있고 기울어져 있어서 적은 노력으로도 음식을 흘리지 않고 뜸 수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사 보조도구입니다.



**잘려진 컵:** 한 쪽이 잘려져 있어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고도 마실 수 있는 컵입니다.



**작은 판이 달린 빨대:** 빨대 끝에 작은 판이 달려있어 아동이 입술로 빨대를 인식하고 오므려서 빨대를 빨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출처 : 홍익무역(www.hongikmail.com)

# 02

## Part

### 의사소통



어휘 및  
의사소통  
발달 촉진

대인적  
의사소통 지원



30p



44p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 느낌, 감정 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하기 훨씬 이전부터 울기, 몸짓, 발성, 얼굴 표정, 시선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언어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의 의사소통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과 대안적 의사소통 지원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어휘 및 의사소통 발달 촉진

### ① 언어발달 촉진적 상호작용 형태

아이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경험함으로써 그 방식과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아이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 내 아이의 의사소통 수준 파악하기

내 아이의 의사소통 수준에 맞는 상호작용 형태는 언어발달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주로 어떤 방법을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는지 파악하여 아이의 의사소통 단계를 파악하고, 수준에 맞추어 부모가 의사소통 해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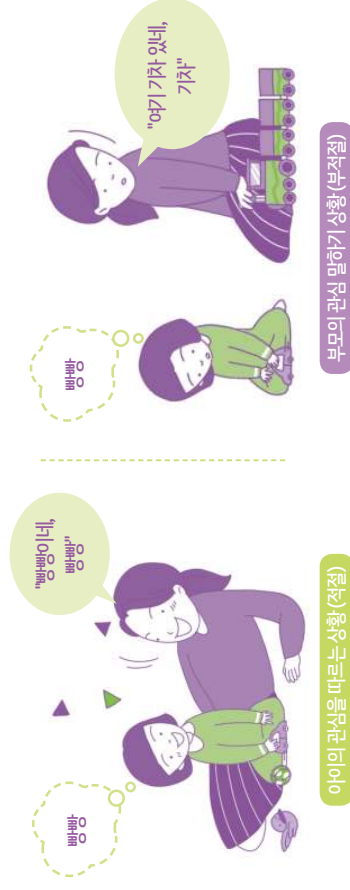
| 발달 단계       | 특성                                                               |
|-------------|------------------------------------------------------------------|
| 날말 조합 단계 이상 | 한 번 말할 때 날말 2~3개 이상을 이어서 말해요.                                    |
| 한 날말 단계     | 한 번 말할 때 날말 하나를 사용해요.                                            |
| 의도 산출 단계    | 말은 하지 못하고 주로 몸짓이나 소리내기 형태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예) 사물을 달라고 가리킨다.)     |
| 의도 이전 단계    | 주로 울음, 미소, 바라보기 같은 행동으로 느낌은 표현하지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행동은 하지 못해요. |

### 아이의 관심을 따르기

부모가 아이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려면 부모의 관심이 아닌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며 상호작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즐거운 상호작용이 되어야 아이의 주의력과 참여도를 높이고 아이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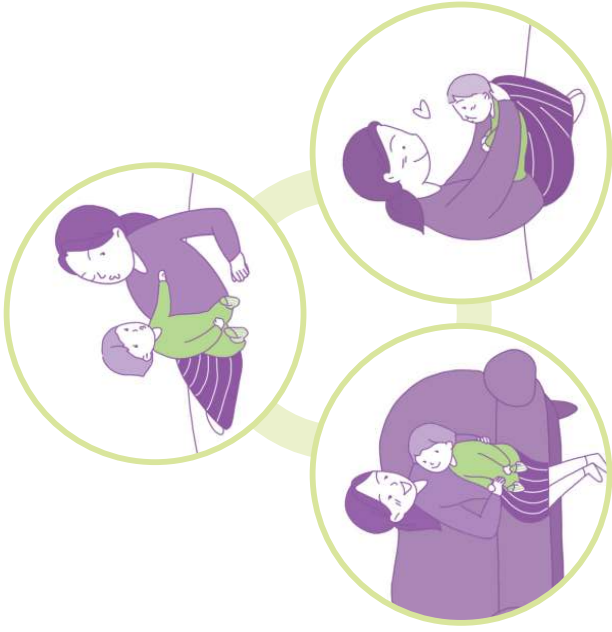
#### \* 아이의 관심을 따르는 방법

-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합니다.
  - 아이가 보고 있는 것, 만지고 있는 것, 귀 기울이고 있는 것 등 아이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합니다.
  - 아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 그래야 아이가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부모의 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아이와 얼굴을 마주봅니다.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가능한 부모와 아이의 얼굴 높이를 맞추어서 마주보며 상호작용하도록 합니다. 아이의 관심을 파악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시선이나 표정도 놓치지 마세요. 부모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쉬워져서 부모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의사소통발달 수준에 맞추어 말해주기

아이의 의사소통 수준에 맞추어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며 말과 함께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며 아이와 상호작용하도록 합니다.

#### \* 아이의 메시지 해석하기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해석하도록 합니다.

#### \* 언어적 모델 제시하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말을 아이의 언어발달 측정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발달을 이해가 표현(말)보다 앞섭니다. 아이가 말하는 수준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은 수준으로 말해주세요. 말과 함께 몸짓이나 사물을 제시하거나 관련 행동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단서를 함께 제시하면 아이의 이해를 돕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 | 우리 아이 의사소통 수준에 맞는 부모의 언어적 모델 제시하기 |

| 수준       | 촉진 방법                                                                                                                            | 예시                                                                                                                  |
|----------|----------------------------------------------------------------------------------------------------------------------------------|---------------------------------------------------------------------------------------------------------------------|
| 의도 이전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의 의도 없는 행동에 부모가 의도를 부여해 주세요.</li> <li>적절한 몸짓과 낱말을 함께해주세요.</li> </ul>                    | <p><b>아이</b> (그저 공을 바라볼 때)</p> <p><b>부모</b>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공"이라 말하고, 공을 가져다 아이 손에 쥐어 준다.</p>                           |
| 의도 산출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몸짓이나 발성을 적절한 낱말로 바꾸어 들려주세요.</li> </ul>                                   | <p><b>아이</b> (물을 달라고 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p> <p><b>부모</b> "물"이라고 말하고, 물을 준다.</p>                                        |
| 한 낱말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가 한 말에 한두 낱말을 더 이어서 다시 들려주세요.</li> <li>아이와 2~3발말 길이의 문장으로 대화하세요.</li> </ul>             | <p><b>아이</b> 물을 달라고 "물"이라고 말한다.</p> <p><b>부모</b> "물 줘?" / "물 주세요"라고 말해주며 물을 준다.</p>                                 |
| 낱말 조합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가 한 말에 한두 낱말 덧붙여 주거나 문법적으로 보완해주거나 의미적으로 관련된 말을 덧붙인다.</li> <li>짧은 문장으로 대화하세요.</li> </ul> | <p><b>아이</b> (물을 내밀며)</p> <p>"이거 명명이"라고 한다.</p> <p><b>부모</b> "명명이 물 줘" ▶ "명명이 물 줘, 명명이 물이라"라고 아이의 말을 보완해서 들려준다.</p> |

## ②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부모의 말하기 스타일

아이가 낱말을 배운다는 것은 들리는 소리(말소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소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들리는 말소리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이가 낱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 촉진적 말하기 형태                     | 이유                                                                                 |
|--------------------------------|------------------------------------------------------------------------------------|
| 느리게 말하기                        | 아이의 말소리 처리능력은 미숙한 상태예요. 말소리를 확실하게 듣고 구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해주십시오.                    |
| 낱말 사이의 쉼(경계)을 분명하게 하면서 말하기     | 아직 낱말(말)을 모르는 아이, 낱말을 여러 개 붙여서 말할 때 낱말 간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이는 어디까지가 한 낱말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
|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말하기          | 아이의 언어발달 수준에 맞추어 짧게 나누어 말해주세요. 아이의 발달수준보다 너무 높아 이해수준을 넘어버리면 아이에게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
| 약간 과장된 억양, 표정, 높은 소리를 사용해서 말하기 |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서, 약간의 과장되게 표현해주면 아이가 더 잘 주의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

## ③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발달 촉진 기법

아아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전략과 기법을 사용하여 아이에게 시범을 보여줍니다.

| 기법     | 방법                                                                                                                                                                                                     | 예시                                                                                                                                                     |
|--------|--------------------------------------------------------------------------------------------------------------------------------------------------------------------------------------------------------|--------------------------------------------------------------------------------------------------------------------------------------------------------|
| 모방     | 아이의 말을 부모가 따라 말해주세요. 아동의 말을 그대로 모방해서 아동에게 자신의 말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div>아이</div> "뽐뽐"<br><div>부모</div> "뽐뽐"<br><div>부모</div> "뽐뽐"                                                                                         |
| 혼잣말 기법 | 부모가 하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생각 등에 대해 말해주세요.                                                                                                                                                                  | <div>부모</div> (아이가 자동차를 미는 엄마를 보고 있을 때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자동차를 밀어"                                                                                          |
| 평행적 발화 | 아이가 하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 <div>아이</div> (자동차를 밀고 있는 상황)<br><div>부모</div> "자동차를 밀어요"                                                                                              |
| 확장     | 아이가 한 말을 좀 더 길게 문법적으로 보완하여 들려주세요.                                                                                                                                                                      | <div>아이</div> "엄마 까까" (내밀며)<br><div>부모</div> "엄마 까까 먹어"                                                                                                |
| 확대     | 아이가 한 말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을 덧붙여주세요.                                                                                                                                                                       | <div>아이</div> "밥 먹어"<br><div>부모</div> "밥 먹어, 배고파, 밥 먹자"                                                                                                |
| 선택 질문  | '예/아니오' 질문보다는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선택 질문을 사용하세요.                                                                                                                                                      | <div>부모</div> "우유줄까? 까까줄까?" (선택형)<br><div>아이</div> "까까"                                                                                                |
| 동사 활용  | 동사는 다양한 활용형태를 들려주세요. 단, 행동을 함께 하며 들려주세요.                                                                                                                                                               | <div>부모</div> (부엌놀이, 과일 자르면서) "질러", "자르자", "질렀다"                                                                                                       |
| 구체어 사용 | 이거, 저거, 그거와 같은 대용어 대신 구체적인 낱말을 사용하여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 <div>부모</div> 이거 저기 넣자(X) ▶ 사과 냄비에 넣자 / 냄비에 넣어                                                                                                         |
| 기능적 칭찬 | 아이의 행동에 대해 단순한 '잘했어'라는 칭찬보다 감탄사나 놀라는 억양으로 아이의 행동을 말로 표현해주세요.                                                                                                                                           | <div>부모</div> (아이가 두강을 열었을 때) "잘했어" (단순 칭찬)<br>"우와, 두강 열었네" (언어촉진적)                                                                                    |
| 대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의 말이 적절한 낱말, 문장으로 표현될 때까지 고쳐나갈도록 유도해주세요.</li> <li>아동이 적절한 언어 말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적절한 형태를 들려주세요.</li> <li>자기 말이 틀려서 수정해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 주세요.</li> </ul> | <div>아이</div> "그거 먹어"<br><div>부모</div> "그게 뭐데?"<br><div>아이</div> "뽐"<br><div>부모</div> "뽐을 어떻게 했디?"<br><div>아이</div> "뽐 먹어"<br><div>부모</div> "아, 뽐 먹어?" |



**잘못된 질문은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피해주세요.**

- 너무 많은 질문
- 아이의 지식을 검사하기 위한 질문
- 아동이 대답하기에 너무 어려운 질문
- 지금 아동의 관심이 아닌 것에 대한 질문
- 아동이 반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질문

#### 4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일상적 상호작용 활동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좋은 일상적 활동으로는 반복적 일과, 놀이, 책읽기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 활동은 아동에게 매우 익숙하고, 매일 반복된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언어발달 촉진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일과의 사용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일과(예) 옷 갈아입기, 이 닦기, 목욕하기 등을 실시할 때 단계를 나누고 단계별로 말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세요.

- 일과 활동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아이 수준에 맞는 적절한 말의 형태를 정해주세요.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에 맞추어 단계의 수, 말의 길이를 조절해주세요.
- 일과를 수행할 때 각 단계별 행동에 말을 연결하여 들려주세요. 동일한 단계, 동일한 시작과 끝, 동일한 언어형태로 반복해주세요. 변화를 주면 학습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이가 목표한 언어행태를 습득할 때까지는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여 주세요.
- 초기에는 부모가 행동에 말을 덧붙여 시범을 보여 아이가 학습할 기회를 주세요.

- 이후에는 아이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면서 단계를 진행하세요. 아이의 말을 유도할 때는 기다리기 → 말이 없으면 → 단서주기(의문사 질문, 첫 음절 말해 주기 등) → 기다리기 → 시범 보이기(부모가 말하기)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 **예** 이 닦기 일과를 사용한 언어촉진 방법

| 단계     | 초기 부모님의 시범 단계          | 아동의 말 유도 단계                              |                |
|--------|------------------------|------------------------------------------|----------------|
|        |                        | 부모                                       | 아이             |
| 시작 알리기 | 이 닦자                   | 이 닦자                                     |                |
| 치솔 꺼내기 | 치카(치솔)<br>꺼내(치솔을 꺼내면서) | (치솔을 꺼내지 않고 아이를 쳐다봄)<br>뭐하지?<br>응, 치솔 꺼내 | 말이 없음<br>치솔    |
| 치약 꺼내기 | 치약 꺼내(치약을 꺼내면서)        | 그리고?<br>아, 치약 꺼내야지, 치약 꺼내                | 치약             |
| 뚜껑 열기  | 뚜껑 열어(뚜껑을 열면서)         | (치약을 들고 기다림)<br>뚜껑<br>그래, 뚜껑 열어(열면서)     | (뚜껑 가리킴)<br>뚜껑 |
| 치약 짜기  | 치약 짜(치약을 짜면서)          | 응, 치약 짜(짜면서)                             | 짜              |
| 치솔질하기  | 이 닦자 / 치카치카 하자         | 그래, 치카치카 하자                              | 치카치카           |

#### 놀이

놀이는 영유아기의 가장 일반적인 활동 중 하나로 부모가 참여하여 아동과 놀아주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효과적인 의사소통 촉진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하여’ 놀기 <그림 | 아이의 놀이에 참여하기>

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뒤에 앉아 말만 하는 부모, 아이와 주고받기 없이 혼자서 신나게 얘기하는 부모, 옆에 앉아서 있으나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는 모두 아이와 진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하고 있는 놀이에 실제로 참여하여

말과 행동을 주고받아 주세요. 아이가 즐거운 상황에서 덧붙여진 말이 아이의 언어발달에 매우 촉진적입니다.

\* 영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이에 언어 적용하기 <표 1 놀이에 언어 적용하기>

- 아이가 좋아하는 일상에서 반복하는 모든 놀이가 언어발달 촉진적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 언어를 시범보일 때 아동이나 부모의 행동, 상황과 부모의 언어 시범의 타이밍을 잘 맞추면 훨씬 효과적인 언어 촉진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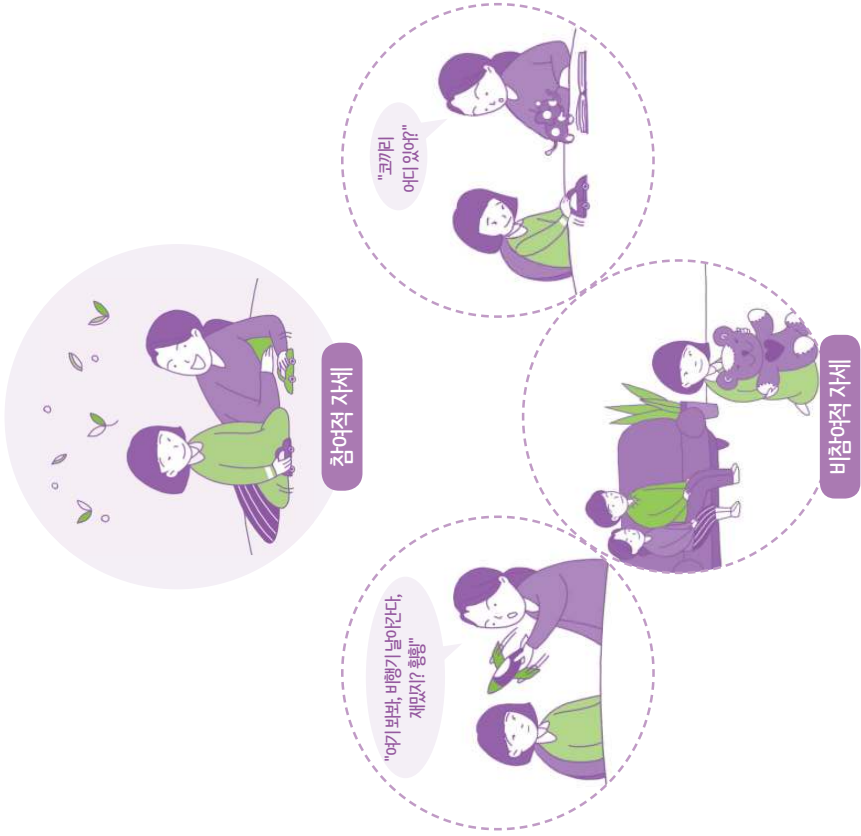


그림 1 | 아이의 놀이에 참여하기

표 1 | 놀이에 언어 적용하기

### 까꿍놀이



아이

부모

아이의 얼굴을 가린 후  
→ “(아이 이름) 없네”  
→ “(아이 이름) 어딤지?”

얼굴을 가린  
천 / 이불을 내리면서  
→ “까꿍”  
→ “여기네”, “찾았다”

### 잡기놀이

아이가 뛰기를 좋아하면 통제만 하려 하지 말고 함께 뛰며 놀아주세요. 그리고 놀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말을 덧붙여 들려주세요.



아이

부모

아이와 눈을 맞추며  
→ “(아이 이름) 잡자 / 잡아라”

(바로 잡지 말고  
잡을 듯 긴장감을 주며,  
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 “○○가 뛰어 가네”, “엄마가 잡는다”  
→ “○○가 된다”, “엄마도 뛰어 간다”

잡으면서  
→ “잡았다”, “○○이 잡았다”

### 부엌세트 놀이

4~5세 이전의 아이들에겐 성별에 구분 없이 다양한 어휘와 언어형태를 촉진하기 쉬운 놀이 활동입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 말의 길이를 조절하고, 행동이 일어날 때 말을 덧붙여 주세요.



아이

부모

오이를 잡고  
→ “오이”

자르면서  
→ “질러”, “자르자”

자른 직후  
→ “잘랐다”

자른 오이를 보여주며  
→ “오이 잘랐어”, “오이 잘랐네”

## 책 읽기 활동

책 읽기 활동은 아이와 부모가 일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언어발달 촉진 활동입니다. '읽기'나 '문자 학습'이 초점이 아닌 아이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세요. 학습이 아닌 부모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놀이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활동을 통해 아이가 자연스럽게 말과 글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언어수준이 낮은 아이일수록 짧은 언어형태, 동일 언어형태의 반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책으로 선정해 주세요. 언어발달 촉진적인 책 읽기 활동이 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호적 책 읽기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책읽기 활동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읽어주고, 아이가 듣는 형태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해줍니다.

### \* 얼굴 마주보고 읽기

상호적 책 읽기를 위해서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마주보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관심과 흥미, 반응을 관찰할 수 있도록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각도로 앉습니다.

#### 상호적 책 읽기의 부모와 아이의 위치



- 아이의 얼굴 / 표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습니다.

#### 일방적 책 읽기 위치



- 아이의 얼굴 / 표정을 볼 수 없습니다.
-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아이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 그림이 있는 책 사용하기

문자를 익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흥미 있어 하거나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림책으로 선정해주세요. 아이에게 그림이 부모의 말을 이해하는 데 큰 단서가 될 수 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 \* 내용을 쉽게 바꾸어 말해주기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지만 수준이 아이가 이해하기에 너무 높다면 책의 말을 그림 상황에 맞추어 아이 수준으로 바꾸어 말해줍니다.



## 1 효과적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책 읽기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식

- 책을 반드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부분에서 시작하세요.
- 반드시 모든 페이지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특정 페이지에 대한 신호를 보인다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설명하세요. 그림만을 보며 설명해도 좋아요.
- 책의 내용을 적절하게 변화시켜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주세요.
- 동일한 책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주세요. 하루에 같은 책만 여러 번 읽어도 좋아요.

## 2 자폐성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소통 시 고려점: 눈맞춤

눈맞춤은 상호작용의 기본이며 시작입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는 눈맞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맞춤을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자폐성장애 아동들에게 눈맞춤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알려주세요. 여전히 눈맞춤을 강요하기보다는 눈맞춤을 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해주세요. 아이와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통해 '눈맞춤'을 유도해 주세요.

### • 어린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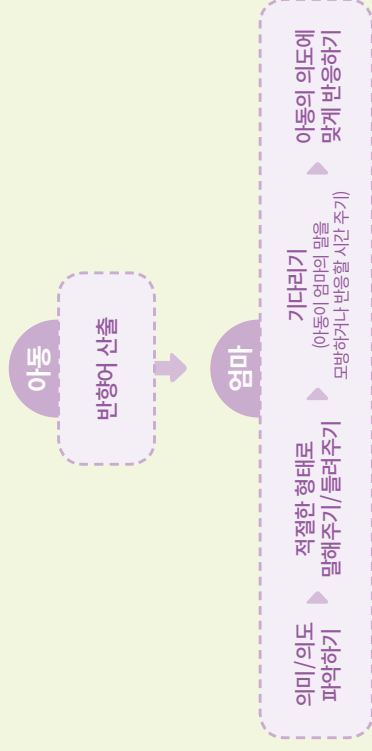
- 서로 마주보고 앉아 눈을 맞추며 하는 놀이를 하세요. (예)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코로 눈”)
- 그림이나 사진, 인형, 손인형에서 눈을 찾고, 서로의 얼굴에서 눈을 찾는(가르키는) 놀이를 해보세요.

### • 문장 대화 가능한 아이

- 대화할 때 눈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말해주세요.
- 예1 (아동이 시선을 회피하며 말할 때) “○○아, 엄마 눈을 보고 말해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 엄마 눈을 보고 말해줄래?”
- 예2 “엄마 눈을 봐봐(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너를 보고 있지? 지금 네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 ③ 자폐성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소통 시 고려점: 방향어

방향어란 타인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언어형태입니다. 방향어는 바로 반복하는 ‘즉각반향어’와 시간이 지나서 이전에 들었던 언어형태를 반복하는 ‘지연반향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향어의 잦은 사용은 자폐범주성 아동의 언어 사용 특성 중 하나입니다. 방향어는 타인의 말을 의미 없이 그대로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아동 ‘나름’의 의미나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의도에 맞는 언어형태를 모르는 경우에 방향어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 방향어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방향어를 산출할 경우에 무조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아동 말의 의도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의도에 맞는 적절한 언어형태로 되물어 보거나 시범을 보여주고, 아동의 의도에 적절하게 반응해 주세요.



### - 예1 - 즉각 반향어

- 부모** (그림책을 보며) “자동차는 빵빵”  
**아이** (현관 쪽을 가리키며) “자동차 빵빵” ... (즉각반향어)  
**부모** “응. 자동차는 빵빵. 기차는 칙칙폭폭” (책을 보며)  
**아이**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현관 가리키기, 또는 신발 신으며)...(나가지는 의미)  
**부모** “자동차 타고 가요? 나가고 싶어?”(먼저...아이의 의도에 맞는 언어형태 시범)  
...(기다리기)...  
**아이** “나가고 싶어”  
**부모** “지금은 깜깜해서 안 돼, 코 자고 내일 가자” ... (이후...상황에 맞게 반응)

### - 예2 - 지연 반향어

- 아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가리키며)  
“아이스크림은 밥 먹고 먹어요”(지연반향어)  
**부모** “맞아, 아이스크림은 밥 먹고 먹는 거야” (편의점을 나오려고 함)  
**아이** (큰소리로) “아이스크림은 밥 먹고 먹어요” ...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의미)  
**부모**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사줘?” (먼저...아이 의도에 맞는 언어 형태 시범)  
...(기다리기)...  
**아이** “아이스크림 사줘”  
**부모** “그래, 알았어 하나만 사자” ... (이후...상황에 맞는 반응)

## 2. 대안적 의사소통 지원

### ① 보완대체의사소통 시작하기

“아이가 말을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의사소통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할 수 있습니다. 울음으로도 웃음으로도 표정으로도 그냥 소리로도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단순한 울음과 웃음 외에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 발달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일반적으로 언어는 초기 무언어수준, 단어수준, 문장수준으로 발달해갑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수화나 그림판을 쓰더라도 이와 비슷한 단계로 발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많은 사람들과 일상적 내용 뿐 아니라 물리학에 대한 의사소통 역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수행합니다. 수화나 그림 컴퓨터 등 말 이외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완대체의사소통(Alternative & Augmentative Communication; AAC)’ 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일반적으로 언어치료실이나 교육현장에서는 ‘AAC’라고 말합니다.

#### 상징, 언어 그리고 약속

언어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사과 달라고 말할 때, “사과”라는 말을 하거나, 사과와 사진 혹은 그림을 가리키거나, 실물을 가리켜도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애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과나 애플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 과일을 그렇게 부르기로 특정 사람 들끼리 약속한 상징입니다. 사과라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 아이와 다른 약속 즉 다른 상징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이란?

보완대체의사소통은 생각, 필요, 요구 등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말 이외의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포함합니다. 표정으로, 제스처로, 발성으로, 상징이나 그림으로 또는 글씨를 사용할 때 우리 모두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거나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점을 일시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상징, 의사소통판 그리고 전자도구 등 무엇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학업수행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적용대상은?

말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는 “숨만 쉬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 혹은 장기간일수도 있고, 선천적 혹은 후천적 일수도 있고, 또는 퇴행성일수도 있습니다. 어린 영유아부터 실어증,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현재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숨 쉬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종류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도구적 보완대체의사소통)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비도구적 보완대체의사소통)가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몸짓, 신체언어, 수어 등 사용자의 몸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입니다. 도구적 보완대체의사소통은 사용자의 신체는 물론 장치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도구의 종류로는 종이와 연필부터 의사소통책, 음성산출기기까지 다양합니다. 전기적 의사소통 도구는 그림 상징, 글자, 글씨와 짧은 구 등을 사용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의사소통책 |

출처: 메이저 존슨  
(www.mayer-johnson.com)



#### | 음성산출기기 |

출처: 마이토키  
(www.mytalkie.co.kr)

## ② 내 아이에 맞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선택하기

###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 아이한테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적용할 때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 인지, 운동능력과 관심사를 알아야 합니다. 아동의 언어와 인지, 운동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수준을 모르고 선택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테크 기술이 더 멋져보이지만 지금 우리 아이에게 활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아동의 언어수준 알기

아이의 표현언어와 수용언어를 평가합니다. 표현언어를 알기 위해 아이가 수궁하기, 거부하기, 요구하기, 감정 표현하기, 선택하기 등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지를 알면 보완대체의사소통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어휘, 지시어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위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의 인지수준 알기

사물의 개념 이해능력과 기능 이해능력, 시물과 상징의 대응 능력을 살펴보고 기본적인 인지능력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 • 아동의 운동능력수준 알기

자세 및 이동능력 평가와 세부적인 신체운동기능의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손가락 등을 이용해 직접선택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보조공학적 장비가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최근에는 아동이 컴퓨터 화면의 어느 부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필요한 음성을 산출해주는 도구도 있습니다.

#### • 아동의 관심 활동 알기

보완대체의사소통은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의 요구나 의도를 매우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관심사와 실제생활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어휘 선택하기

#### • 핵심어휘

의사소통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백 개의 핵심 어휘를 가지고 의사소통의 85%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출처: ASHA).

#### • 부수어휘

핵심어휘에 비해 빈도수는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연령, 관심사와 활동, 선호하는 장소 및 환경 등을 반영하는 어휘들이 포함됩니다. 부수어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용자나 혹은 부모들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 • 우리 아이의 핵심어휘 작성하기

우리 아이의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어휘의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령, 성별, 선호도, 의사소통 상황,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아에게 맞는 어휘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실제 의사소통 환경을 관찰하고, 부모가 의사소통 일기를 작성해 봄으로써 아이의 의사소통 요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사용되는 어휘들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 다만 특히 아동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자주 요구하는 어휘를 이용하는 것이 초기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용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 ECS)로 의사소통하기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가 있습니다.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는 자폐아동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중재법으로 1985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을 이용하여 의사소통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사소통장애, 인지, 지체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 I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 사용방법 I

##### 1단계: 교환개념지도

한 개의 그림과 아이가 원하는 활동 또는 선호물을 교환하는 것을 배웁니다.

##### 2단계: 자발적으로 교환하기

아직 한 개의 그림을 이용하며 아동은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거리에서 실행해 봅니다.

##### 3단계: 그림식별하기

아동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그림으로 좋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은 벨크로가 붙어있는 링 바인더 등을 이용한 의사소통책 안에 넣어두고 의사소통을 위해 쉽게 떼어져야 합니다.

##### 4단계: 문장으로 표현하기

아이는 선호물을 요구하기 위해 간단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주세요.)



#### 4 가정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으로 의사소통 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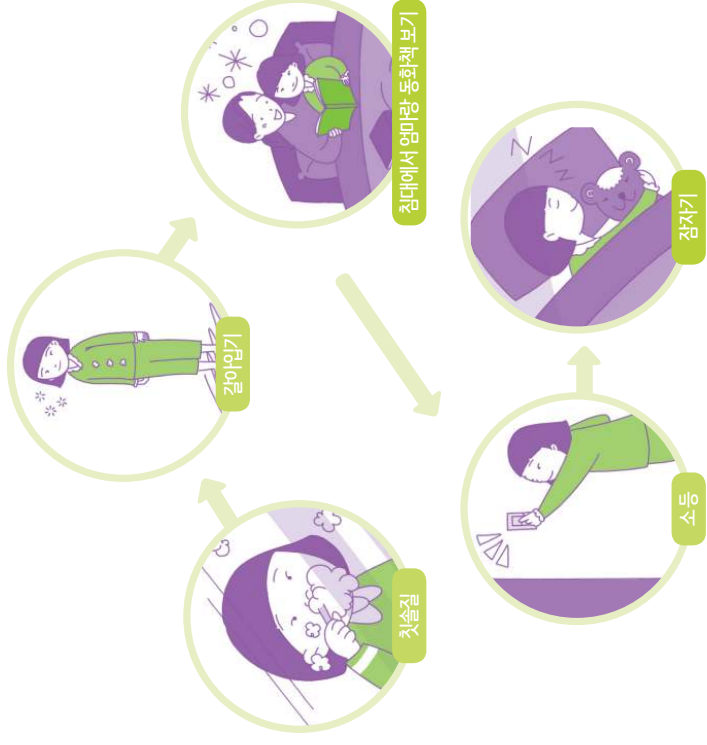
#####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상정 제시

교환 개념 학습이 전혀 안되고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 이외에 의사소통이 전혀 안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우선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징과 사건 혹은 상징과 사물을 함께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집에 갈 때는 무조건 집에서

현관 앞에 부착된 용판이나 엄마 앞치마에 어린이집 사진(등원차량이나 교사의 얼굴 등 아동이 인식 가능한 것에 찍찍이를 부착)을 엄마와 함께 붙이고 나섭니다. 또 식사, 혹은 물을 마시기 직전 늘 컵(사진이나 사물 상징)을 보이고 상징판에 붙이고 난 뒤 먹거나 마십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위험한 어떤 동작 등을 반복할 경우 안 된다고 하면서 항상 같은 모양의 카드 함께 제시하고 끝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이용하기

이 닦기, 기저귀 갈기, 화장실 용변보기, 잠옷 갈아입기 등 일상에서 자주 반복되는 사건을 정해서 매일 아동과 해당 상징을 가리키거나 떼거나 붙이기 등 아동이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씩 집중적으로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목록을 늘려가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엄마가 붙이고 반복하다가 아동이 집중하거나 직접 하려는 시도를 보이면 격려해주거나 도와주다가 도움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 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내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모두 협력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배우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적용할 수 있는 언어치료사나 특수교사를 찾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 영유아들은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쓰기에는 너무 어린가요?

아니요.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사용은 영유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아동의 초기 3년간의 경험이 나중에 뇌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경험인데, 만약 양육자가 아이의 미묘한 의사소통 행동을 알아채지 못하고 적절히 반응 해주지 못한다면 초기 의사소통 경험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의 빠른 적용은 아동이 의도적인 의사소통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자가 아동의 의사소통 의도에 적절히 반응하고 강화해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영유아가 기본적인 요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보완대체의사소통이 필요없나요?

아니요. 인간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Maslow는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모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필요나 요구가 있을 때만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할 때에도, 사회적 에티켓 또는 사회적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1980년대 후반부터 보완대체의사소통은 인지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사물, 사진, 그림상징들을 선택하기 활동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인지적 손상 정도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말 언어발달, 문해력, 사회적 기술, 타인과의 관계, 학교나 직업적 환경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지손상을 가진 아이들이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선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지적 능력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나 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적 능력에 맞게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사용이 말 발달에 방해가 되진 않나요?

☞ Miller 외(2006)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의 89%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사용한 후 말산출이 증가하였고, 11%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말 산출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체장애는 물론이고 자폐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해보면 결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사용이 구어산출을 막는 결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말 산출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5 도구적 보완대체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이운숙, 전병운(2010)은 2000년~2009년까지의 발달장애 아동들 대상으로 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중재연구들을 분석하였는데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중 그림교환의사소통 체계, 음성산출기기(VOCA), 의사소통판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예를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이화여대 마이토키 동영상 - [www.youtube.com/watch?v=SgwtdSX-Kfc](http://www.youtube.com/watch?v=SgwtdSX-Kfc)

### 정부 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이상을 지원하며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합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제품들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아동의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 및 교환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 의사소통과 관련한 2016년 보급제품 |

| 이름                                                                                                 | 용도                                                                                                                                                                                    |
|----------------------------------------------------------------------------------------------------|---------------------------------------------------------------------------------------------------------------------------------------------------------------------------------------|
| <br>와이드톡        | 구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나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한국어 의사소통에 가장 최적화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입니다.                                                                                                 |
| <br>오케이톡톡       | 그림상징과 음성데이터를 통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보조 기기 및 언어학습 훈련기기입니다. 컴퓨터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상징그림·음성을 편집 출력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에는 터치모니터를 의사소통기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톡톡에 직접 음성 녹음도 가능하며 SD 메모리 방식으로 녹음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
| <br>오케이톡톡 에듀패드 | 인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인들이 의사표현 및 언어훈련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보조기기입니다.                                                                                                                 |
| <br>보이스탐      | 최신 IT 솔루션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휴대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다 쉽게 언어의 표현방법과 의사전달을 통하여 개발한 의사소통 단말기입니다.                                                                                        |
| <br>마이트키 스마트  | 조음 및 발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형 심벌(상징)과 음성 출력 기능이 내장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입니다.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사업([www.at4u.or.kr/index.asp](http://www.at4u.or.kr/index.asp))



####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PC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내 아이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의사소통판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 나의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ACC) - [www.myaac.co.kr/web/](http://www.myaac.co.kr/web/)

# 03

## Part

### 교육지원



유아교육기관  
취학 준비



56p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



63p

초등학교  
취학 준비



67p

포래와 함께  
생활하기



69p

영유아기에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장, 발달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선택이 중요 합니다. 아이들의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취학 준비 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 03 교육지원



## 1. 유아교육기관 취학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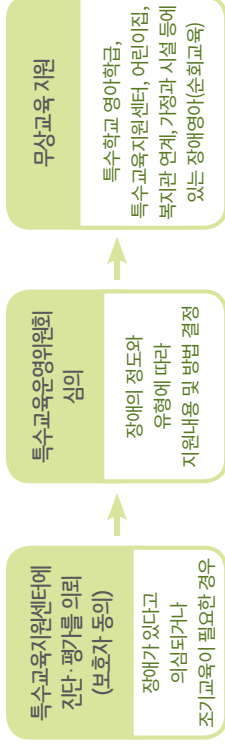
영유아기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성장, 발달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영유아들은 첫 유아교육기관 생활을 통해 가정교육을 보완하고, 발달기에 적합한 적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 발달장애 및 발달지체 영유아 조기 진단비 지원 안내

- 대상: 만 0세~만 2세 영아 중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영아(만 3세 미만의 영아)
- 진단비 지원 금액: 1인당 25만원 범위 내 지원(\*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 제출 서류: 조기 진단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단비 영수증 원본
- 제출 방법: 해당 교육 지원청에 제출
- 지원 시기: 매월 25일 지원비 신청
- 신청 방법



장애영아 순회교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 순회교육

- 장애정도가 심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워 가정에서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못한 일반학교에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 표준보육과정과 영아의 연령, 발달특성 및 학부모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수장보완에 높이 및 활동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 실시 방법

- 순회학급 운영지침: 주 2회 수업, 1회 2시수, 1시간 수업(1시수 30분)
- 장애영아 순회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방문교육 및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지원 됩니다.

※ 어린이집 및 기타 기관 자원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아는 순회교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 및 발달지체 유아 교육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장애유아 교육지원 안내

- 대상: 특수교육기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립유치원 및 사립일반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만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유아

※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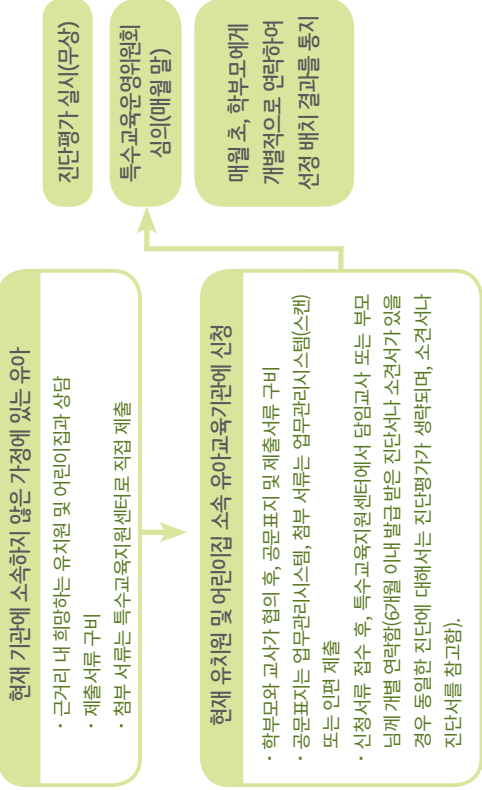
※ 만 5세 누리과정 대상 유아는 교육비가 지원됨에 따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시기: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면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

### • 지원내용

- 1) 공립 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월 9만원, 연 108만원 정액 지원)
  - : 급식비, 통학비, 교재대,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 등
- 2) 사립 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월 36만 1천원, 연 433만 2천원 내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를 유치원에 지원)
  - :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재료비, 행사비, 방과 후 교육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

### • 선정·배치 절차



### 양육 사례 ①

유아통합교육 기관에서의 교육받았던  
양육경험의 장단점 및 기대하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박선영(가명)

### 성장 과정

하늘이는 5살에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받았죠. 왜냐하면 하늘이의 경우 30개월까지는 자폐 여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세 단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눈 맞춤이 안 되거나 흔히 자폐아동들이 보이는 상동 행동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더구나 두 살 터울 누나와 소꿉놀이도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30개월 이후 급격하게 표현 언어가 소멸되고, 자동차 바퀴에 집착하며 불려도 대답을 하지 않지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불안한 마음에 대학병원 소아정신과를 찾았으나 의사선생님은 단순하게 발달이 조금 늦은 편이라며 남자 아이의 경우 30개월이 지나 급격한 발달 양상을 보이니 6개월만 더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두려움으로 커져갔고 36개월이 되자 '엄마'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저는 놀이치료와 언어치료를 동시에 시작하였고 하늘이의 고립된 성향을 염려하여 그룹치료를 알아보고 집 근처 어린이집을 탐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통합어린이집 선택 이유

하늘이에게는 자폐성장애 특성이 보이지만, 하늘이는 흔히 우리가 문제행동이라 부르는 공격 행동이나 자해행동을 다행히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자기만의 감각과 독특한 세계에 빠져있는 하늘이의 관심을 또래에게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기 유아들은 주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빠르게 확장되는데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하늘이와 또래들이 서로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었으면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늘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며 이웃의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랬고

부모인 저 또한 그 부모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바람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이는 교사와 또래들의 도움으로 어린이집을 잘 다녔고 저 또한 주변 선배 부모들의 도움과 조언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렇게 2년을 어린이집에 별 무리 없이 다녔으나 6살이 될 즈음 저는 학령기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 학령기 즈음 병설 유치원 선택

완전 통합을 추구하는 어린이집 생활이 나쁘지 않았지만, 곧 초등학교생이 될 것이라 저는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병설유치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위치해 있고 공교육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수교사가 우리 아이를 지원해 준다면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이 보다 잘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적어도 8년간은 한 학교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선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힘든 하늘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 교육이 필요함을 하늘이를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의 교육은 치료교육기관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으며, 유치원에서도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던 지역에는 병설유치원 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다행히 다음 해 부터 두 곳의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개설하여 시범적으로 통합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역 중 한곳으로 이사를 감행하였습니다.

#### 병설 유치원 선택 이유

이사를 하면서까지 제가 특수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을 고집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장기간 다닐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두번째 이유는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발생하였지만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장점은 우리 아이를 드러냄으로써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이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은 이해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 이해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니다. 보통 우리 자폐성장애아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이 좋아질 것을 바라며 통합교육을 지향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시절에는 그러한 이유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 통합교육의 장점 및 바람

만약 지금 다른 엄마들이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통합교육이나 분리교육이나를 두고 고민 중이라면 저는 감히 통합교육기관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사회성이 부족한 자폐성장애 아동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교사들과 다른 부모님들을 이해시키는 문제, 또래관계에서 소외되는 문제, 학습에서의 더딘 성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에서 더 유연해야 하고 학교행사에 더 적극적으로야 하며 때로는 다른 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때에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우리의 낮은 걸음이 우리 자녀에게는 더 나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가 10년 동안 통합교육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졌을까 궁금하시죠? 고등학교 1학년인 지금 여전히 말을 못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미리 설명을 해 주면 낯선 장소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타인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다릴 줄도 압니다. 혼자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를 즐겨워합니다. 매해 바뀌는 학교생활에 바로 적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와 함께 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늘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늘이와 저에게 있었던 많은 변화가 통합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 유아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점검표

| 항목             | 내용                                  | 기록 |
|----------------|-------------------------------------|----|
| 이용<br>가능성      | 몇 살 영유아부터 교육하는가?                    |    |
|                | 문을 여는 시간은 언제인가?                     |    |
|                | 대기자 명단은 있는가?                        |    |
| 시간과<br>장소      | 종일제와 반나절 시간은 몇 시간인가?                |    |
|                | 집에서 가까운가?                           |    |
|                | 직장에서 가까운가?                          |    |
| 보육<br>및<br>교육비 | 교육비는 적절한가?                          |    |
|                | 연령에 따라 교육비에 차이가 있는가?                |    |
|                | 교육비에 점심은 포함되는가?                     |    |
|                | 추가적인 비용이 있는가?                       |    |
|                | 깨끗하고 안전한가?                          |    |
| 건강과<br>안전      | 실내·외 공간이 충분한가?                      |    |
|                | 실외 놀이터 시설은 안전한가?                    |    |
|                | 영양가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는가?               |    |
|                | 바상구가 있는가?                           |    |
|                | 차량운행 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가?               |    |
| 하루<br>일과       | 등원 시 따뜻하게 맞이하는가?                    |    |
|                | 교사가 부모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이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가?  |    |
|                | 점심과 간식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가?                |    |
|                | 낮잠시간은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가?            |    |
|                | 정적 또는 동적 활동을 위한 시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애정과<br>관심      | 아이가 개인적인 관심을 받는가?                   |    |
|                | 교사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가?                 |    |
|                | 교사가 아이를 부드럽게 만져주는가?                 |    |
|                | 교사가 아이와 부모를 존중하는가?                  |    |
|                | 교사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아이들의 행동을 잘 관찰·감독하는가? |    |



tip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보공개 사이트(<http://info.childcare.go.kr>)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시설·설치·운영자·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여러 가지 블록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환호하는 모습, 친구들과 어울려 엮마, 아빠 역할극을 하면서 극 놀이하는 모습,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 등 여러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란 기대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신나고 즐거운 활동입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적응해 나가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 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를 살펴보아요.

## 등원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방과 걸옷을 사물함에  
정리합니다.



## 자유선택활동

선생님, 친구들과 원하는  
놀이나 활동을 합니다.



## 바깥놀이 활동

뛰고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신체를 발달시키고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대·소집단 활동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기, 동시, 동화,  
동극, 게임, 요리 활동  
등을 합니다.



## 평가 및 귀가

통학자량이나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귀가합니다.



## 선생님이 하는 일

### \*등원

선생님은 유아들의 건강·심리 상태를 살펴  
봅니다.

### \*자유선택활동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자기주도적인 활동,  
교사와 일대일 상호작용, 교구 및 또래들과  
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 꼭 참여하여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 \*바깥놀이 활동

신체발달과 긴장 해소를 도와줍니다.

### \*정리정돈

정리정돈을 하면서 책임감을 기르고, 서로  
돕고 협동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 \*간식 및 식사

올바른 식사습관 예절을 기를 수 있는 중요  
한 시간입니다.

### \*평가 및 귀가

함께 모여 하루 생활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 ② 유아교육기관의 실내외 교육환경을 알아보아요

### 흥미영역이 궁금해요

유아의 놀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실내 공간을 나누어 흥미영역을 중심으로 구성 하되 각 놀이 특성에 따라 자료들을 모아서 영역별로 배치하여 놀이하는 활동입니다. 흥미영역으로는 언어영역, 수·조작 영역, 과학영역, 미술영역, 쌓기놀이 영역, 역할놀이 영역, 음률 영역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실내·외 자유선택활동이 궁금해요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유아교육 기관의 하루 일과 중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시간으로 영유아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입니다. 자유선택활동의 교육적 의의는 영유아들의 능동적 학습과 개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활동방법은 다양한 흥미영역을 돌아다니면서 교구와 토레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 실내 흥미 영역

교사와 토레와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수·조작 영역

사물의 수 양을 경험,  
조각 그림 맞추기, 바느질하기,  
그림재임, 끼우기



##### 언어 영역

그림책 보기와 읽기,  
카세트를 이용한 동화·동시 듣기



##### 음률 영역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노래하기



##### 과학 영역

화분 키우기,  
탐구할 수 있는 교구



#### 실외 놀이 영역



텃밭 가꾸기, 모래놀이,  
실외 놀이터 활동

### 현장체험 학습 준비, 이렇게 도와 주세요

현장체험 학습은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도시락은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도시락이나 간식 통은 아이가 열기 쉬운 것이 좋아요.
- 간식통은 집에서 식사할 때 과일을 넣어 두고 미리 열기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 김밥, 주먹밥, 초밥 등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 과일이나 간식은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아주세요.
- 음료의 경우 캔 보다는 열고 닫기 쉬운 뚜껑이 있는 것이 좋아요.
- 음료수나 물은 새지 않도록 비닐 팩을 씌워주세요.
- 초콜릿, 사탕, 빵 같이 녹거나 짓이겨질 수 있는 음식은 피하세요.



## 3. 초등학교 취학 준비

유아교육기관을 졸업한 아이들에게 가장 큰 기대림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 까요? 당당하게 아이의 입학을 축하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학교에 진학하건,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는 일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시작 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 1 초등학교 입학 전, 양육자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 의무취학과 무상교육이 궁금해요

|                 |                                                                                                                                                                                                                                                                                                                                              |
|-----------------|----------------------------------------------------------------------------------------------------------------------------------------------------------------------------------------------------------------------------------------------------------------------------------------------------------------------------------------------|
| 관련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교육(「교육기본법」 제8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li> <li>· 취학유예 및 면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li> </ul>                                                                                                                                                          |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의무취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li> <li>· 무상교육: 고등학교 졸업 후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합니다.</li> </ul>                                                                                                                                                             |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li> <li>·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습니다.</li> <li>·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수급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학생이 활동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li> <li>- 유예: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합니다.</li> <li>- 면제: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합니다.</li> </ul> |

##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신청 절차가 궁금해요



### 유예? 한 번 더 생각해봐요.

- 무조건 유예는 옳지 않아요.
  - 장애학생들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순회교육 등 별도의 교육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유예하기 보다는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유예를 하면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아요.
  - 취학유예학생은 무상교육비, 치료지원비, 교육비 등 교육적 혜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4. 또래와 함께 생활하기

영아기를 지나면 장애아동도 또래들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첫걸음은 장애와 비장애라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 1 우리 아이가 또래친구를 만났어요

#### 우리 아이 장애 이야기하기

##### 또래 친구 만나는 이렇게 해요

발달장애 현민이는 올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엄마는 그동안 병원과 치료실을 다니느라 잘 만나지 못했던 동네 친구들과 현민이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얼마전부터 매일 아파트 놀이터에 현민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무엇보다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아이들이 현민이 주변을 낯선 듯 다가왔다가 또 멀리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 · 아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야기해주기

이 또래의 아이들은 아직 다름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동반된다면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 내 아이의 장애유형에 따른 행동방식 설명하기

-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다른점과 같은점,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 장애와 관련해 사용하면 안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 포레아이를 부모와 관계맺기

영유아 단계의 포레관계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변 아이들의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아이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영유아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주기

• 함께 놀기

- 장애가 있는 친구 기다려주기

-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잘 설명해주기

-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알고 함께하기

• 도와주고 싶을 때

-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도와주기

-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 장애가 있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기

• 갈등이 생길 때 잘 싸우고, 잘 풀어가기

장애가 있는 친구 도와주기는 이렇게 해요

현민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한지 한달쯤 지났을 때 현민이 엄마는 여벌옷을 갖다주러 우연히 어린이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할지... 아이들이 현민이를 도와주는 것 같긴 한데... 아기 다루듯이 하면서 돌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 장애가 있는 친구와도 싸울 수 있다는 것 알려주기

- 장애가 있는 친구는 같은 실수를 여러번 할 수 있다는 것 알려주기

- 장애가 있는 친구는 비장애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모를수도 있다는 것 알려주기

교사들과 아이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기

• 내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기

• 아이가 스스로 헤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결정권 존중에 대한 방식 의논하기

• 다른 아이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공정한 판단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의논하기

• 무조건 장애아동의 편을 드는 행위는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에 대한 논의 필요

## 자녀가 가야 할 초등학교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선택(가명)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큰 고비 중, 장애를 의심하다 결국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시기가 첫 번째라면, 그 두 번째는 아이를 처음 공교육에 내맡겨야 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부모가 아이를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고, 부모의 용기여부, 자존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이해부족, 편견 등에 의해 결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일반초등학교(특수학급) 선택

지금 고3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을 떠올려보면, 아이를 1년간 유예시킨 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 당시 전액 개인부담으로 개인보조교사를 채용해 전담을 시키면서까지 통합을 감행했고, 그 후 학교는 보조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입학을 한 후 또래 아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도 잠시, 점차 아이들의 놀이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는 아이는 친구들의 돌봄의 대상일 뿐이며, 수업도 수행이나 이해가 어려운 영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점차 아이는 수업시간에 멍하니 있거나 지루한 시간들 견디며 학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학년 즈음에 복도에서 바라본 아이의 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 안쓰럽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아이에게 적절한 최상의 환경은 어떤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4학년이 되면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 일반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로의 전학

특수학교는 장애아이를 위한 교육계획을 좀 더 포괄적으로 교사와 학부모와 동료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었던 점이 뚜렷한 순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시간에

있어, 아이에 맞는 개인별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학교 시설들을 이용하며, 방과 후 수업에 장애특성에 따른 선택이 열려있으며, 성장에 따른 변화를 다양한 교사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선택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선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후배 양육자에게 바라는 점

아이의 성장 및 발달 특징에 맞게, 시기별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시킨 것은 결코 통합의 실패가 아니라 내 아이에 맞는 세롭고 특별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첫 사회인으로서의 규율을 익히며, 기다림을 배우고, 착석을 훈련하는 등 여러 가지 통합적 목적을 취하고, 이 후 추구할 새로운 목표들을 위한 환경변화로 특수학교로의 전학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부모의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재조정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때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두려움이나 여건으로 통합을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특수학교로 진학시켜 12년을 같은 환경만 제공하거나, 혹은 반대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통합의 가지 부작용 속에 무너지고 있는 아이를 외면한 채 오로지 부모의 의지로만 통합을 고집하여, 졸업 후 오히려 비장애인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부적절한 소통방식이 고착되어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진학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부모 뿐 아니라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하고, 교사와의 상담 및 아이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아이가 빠진 고민을 하는 비정상적인 시행착오들을 줄이는데 나의 소박한 경험과 견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양육 사례 ③

일반초등학교(특수학급)에서 교육받았던  
양육경험과 통합교육을 선택할  
후배 양육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강소라(가명)

현재 고1인 민준이의 학교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입학 후 6개월 동안 평평 울며 다녔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 6개월의 기간은 ‘통합교육’이라는 큰 선택을 하기 위해 참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선택에 적응하기 위해 차절히 노력을 했던 시기였다. 민준이는 운이 좋게도 통합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었다. 유치원과정을 통합환경에서 보냈으니 ‘초등학교도 일반학교 가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진학할 시기가 되니 그 당연함이 막연한 선택이었고 막연한 선택을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 통합교육 선택을 위한 세 가지 기준

첫째, ‘아이 성향 파악하기’이다. 통합환경을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을 더 편해하는지 등 아이를 관찰하고 어느 것이 좋은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림, 물감 등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라도 어떤 환경,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묻는 것이 참 중요하다. 민준이는 치료실에서 장애아동끼리 활동을 하는 것보다 통합반에서 비장애 아동과 활동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였다. 선생님과 특수교사 보단 일반교사를 더 좋아하였다. 물론 교사마다 다른 태도와 다른 교수 방법을 쓰지만 개별 지도하는 특수교사보단 함께 어울릴 수 있게 지도해 주는 일반 교사를 더 좋아 했고,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잘 어울렸고 적극적이었다. 둘째, ‘부모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 정하기’이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무엇인가를 시작 할 때 만약 아이가 ‘장애’가 없다면 어떤 지원을 했을까 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이 편견으로 바르지 못한 양육과 교육을 할까봐 항상 긴장하며 항상 긴장하며 선택의 순간에 이런 과정을 반복 했고, ‘본리교육 보다는 통합교육을 시키자’라고 목표가 정해졌다. 우리 부부는 주양육자인 엄마

의 의견에 따라 통합교육을 시작했지만, 떠돌림으로 아이가 다쳐 올 때는 남편이 분리 교육을 시키자며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었다.

셋째, ‘엄마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까?’이다. 일반학교의 경우 학급 일을 돕거나 기타 등등의 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사소통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같은 반 엄마들과의 친분도 유지해야 한다. 치료시간외에 별도의 이 시간을 꼭 내야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특수학교의 경우 물론 시간을 내서 아이의 식사보조 등의 학급일을 하지 만, ‘장애’를 알고 있는 무리속에 있는 것과 ‘장애’를 모르는 무리속에 있는 상황은 다를 것이 다 라고 상상했다.

#### 통합교육 선택을 고민하는 후배 양육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 .....

이런 세 가지 고민의 결과 일반학교를 선택하였고, 다음의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갔지만 어린 이집 보다 훨씬 적은 지원에 크게 놀랐고, ‘장애’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컸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엄마가 통합환경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못했던 것이다. 막상 통합교육을 하겠다 결심하니, 학교 선택을 위한 고민, 통합교육을 잘 하기 위한 고민 등 많은 고민들이 생겼다. 그 중에 중요하게 여겼던 몇 가지가 있다. ‘최대한 익숙한 환경 만들어 주기’,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 가기’, ‘아이는 통합교육 환경이 충분히 힘드니, 치료시간을 줄이고 쉬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자’이다.

통합교육을 하며 아이는 또래 비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당당하고, 또래 문화를 알며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사회적 인간의 모습이 강해졌다.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지역 사회에서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다. 부모 또한 우리 아이가 지역사회에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위에 한 고민들이 지금은 너무 담담하게 느껴지지만 그때는 참 많이 울고 잠도 못자며 고민 했던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진학은 교육의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기를 바라며 엄마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 하고 싶다.

# 04

## Part

### 행동지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양한 문제행동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행동은 일반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자신과 타인을 괴롭  
히는 행동이며 부모나 교사가 적절하게 지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타인과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기능



78p

문제행동  
중재 방법



80p

문제행동  
대처하기



84p

바람직한  
훈육 방법



90p

## 04 행동지원



### 1. 행동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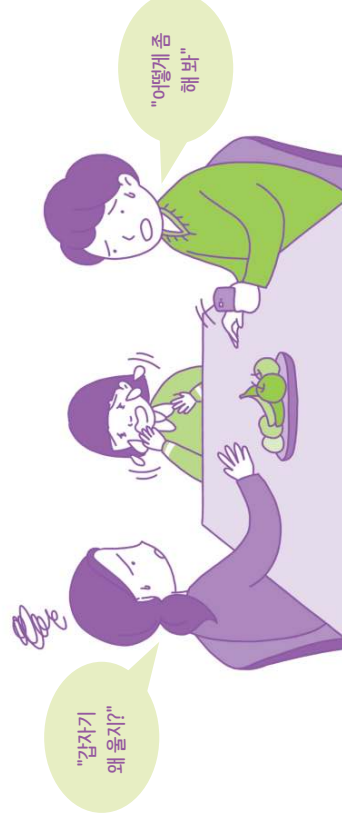
아이의 행동은 행동의 원인과 부모의 반응에 따라 행동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문제행동을 없애려고 하기 보다는 문제행동을 왜 하는지 알아보고 그 원인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어요

아이는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하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의 기능은 “밥 주세요”, “놀이 주세요”, “무서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등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5가지 문제행동의 기능을 참고하여 아이의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대처해 보세요.

| 문제행동의 기능                        | 문제행동의 예                                                                                                                                                                           |
|---------------------------------|-----------------------------------------------------------------------------------------------------------------------------------------------------------------------------------|
|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한 문제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잘 놀다가 엄마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우는 행동</li> <li>• 엄마가 일을 할 때 소리를 질러 엄마의 시선을 끈 다음 자신의 손등을 물어뜯는 행동</li> </ul>                 |
| 하기 싫거나 할 줄 모르는 활동을 회피하기 위한 문제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 시간이라고 말할 때 자기 싫어서 우는 행동</li> <li>• 양치질을 하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행동</li> </ul>                                                          |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문제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다른 사람이 갖고 놀 때 장난감을 달라고 우는 행동</li> <li>• 먹고 싶은 반찬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행동</li> <li>• 놀이 시간이 끝나고 정리하라고 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도망가는 행동</li> </ul> |
| 감각조절을 위한 문제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적으로 손을 흔들기, 손가락 문지르기, 몸을 흔들기, 물건 돌리는 자기자극 행동 등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행동</li> </ul>                                                           |
|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이나 시물들을 손가락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두들기는 행동</li> <li>•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계속 흔드는 행동</li> <li>• 침 장난, 허 치는 행동</li> </ul>                                  |



## 2. 문제행동 중재 방법

문제행동 중재 방법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기초로 하여 중재의 기본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 ① 긍정적 행동지원

- 사람의 행동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하게 됩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아이의 문제 행동 자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하고 적절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최대한 시키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주변 환경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긍정적 행동지원은 문제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중재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행동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 긍정적 행동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 자신과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문제행동 자체의 감소 뿐 아니라 문제행동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 ② 바람직한 행동 증가시키기

- 문제행동 중 변화시켜야 할 행동(목표행동)을 선정합니다.
- 목표 행동이 결정되면 철저하게 행동의 기능을 파악한 후 중재해야 합니다.
- 행동수정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 절차 등을 결정합니다.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대신 할 바른 행동을 선정하여 알려줍니다.
- 아이가 좋아하는 강화재를 선정하여 강화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 강화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단계: 문제행동의 정의와 우선순위의 결정

아이가 보이는 문제행동을 관찰 가능한 용어로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고, 문제행동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지원할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1순위는 파괴행동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할 만한 행동이고, 2순위는 방해 행동으로 자신과 또래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이며, 3순위는 경미한 방해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 등입니다.

#### 2단계: 행동의 기능평가

양육자와의 면담, 진단평가 및 직접관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행동의 의사소통적 목적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누구와 같이 있을 때 문제행동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제 주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문제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3단계: 가설세우기

왜 문제행동이 발생하며 문제행동은 아이에게 어떤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가설은 관찰된 선행사건, 행동, 후속결과 사이의 관계를 밝혀 줍니다. ㉠ 선행사건(㉡) → 문제행동(㉢) → 후속결과(㉣)를 맞추자고 요구함. 행동(㉢): 소리 지르고 퍼즐을 던짐. 후속결과(㉣): 손을 들고 벌을 사게 함)

#### 4단계: 행동지원 계획 수립

- 선행사건 중재: 퍼즐의 난이도 조정 및 선택의 기회제공
- 대체행동 가르치기: 후식요청 및 도움요청 지도하기(㉤) 도와주세요)
-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퍼즐을 모두 맞추 후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기

대체행동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대체행동이 문제행동보다 더 쉬운 행동이어야 합니다. 행동지원 초기에는 아이가 문제행동 대신 대체행동을 보일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주어 아이로 하여금 문제행동보다 대체행동이 훨씬 효과적임을 이해시켜야 하는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성공의 경험과 대체행동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 해 주어야 하고 대체행동을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도 연습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 5단계: 긍정적 행동지원의 평가 및 수정

행동지원 계획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와 아이에게 적합한 지원계획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수정 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합니다.
- 잘한 행동들은 칭찬해 줍니다.
- 되도록 “하지마”, “그만해”, “안 돼” 등의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③ 행동의 기능에 따른 중재 방법

####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한 문제행동

- 관심을 끌기 위한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자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 아둔치거나 보살펴 주기 등으로 강화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무시하여야 합니다. 무시를 하면 아이는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문제행동을 더 크게 자주 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을 해주면 아이의 문제행동은 더 심각해지므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끝까지 무시를 해야 합니다.
-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 해주면 아이는 문제행동을 해서 관심 받는 것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 관심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간단한 표현을 지도하여 문제행동 대신 말로 관심을 요청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간단한 동작이나 그림카드를 사용하여 관심을 요청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 하기 싫거나 할 줄 모르는 행동을 회피하기 위한 문제행동

- 아이가 어떤 것이 하기 싫거나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자기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또한 휴식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능적 의사 소통 기술을 지도하여 “도와주세요” 또는 “쉬고 싶어요” 등의 말이나 그림카드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어렵고 힘들어하는 과제를 줄 때는 아이가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스스로 선택한 과제이기 때문에 회피행동이 줄어들습니다. 과제를 완성했을 때는 적절한 강화를 제공해 주세요.
- 아이를 오랫동안 앉혀 놓고 무조건 행동을 강요하기 보다는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움직임은 활동이나 놀이를 제공해서 활동에 주의집중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 회피를 위한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과제를 요구하거나 난이도 등을 조정해 주시고 어려운 과제와 쉬운 과제를 번갈아 제시하여 주세요.

#### 구체적인 사물을 얻기 위한 문제행동

- 어떤 활동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는 타이머나 알람 등을 이용하여 앞으로 몇 분만 더 하고 다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고해 주세요. 예고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예고 직후에 문제행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관적으로 활동의 종료를 예고해 주시고 다음 활동으로 연결해 주시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보이는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해야 하는 활동들을 시간 순서대로 사진을 찍어서 시각적 일정표를 제작하여 다음 활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아이가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규칙을 만들어 타이머 소리가 나면 갖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거나 다음 친구에게 넘겨주도록 지도해 주세요.
-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의 그림을 그려놓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를 모두 채우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티커를 사용할 때 문제행동을 하면 주었던 스티커를 회수해야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합니다.

#### 감각조절을 위한 문제행동

- 특정 감각이 너무 싫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또는 특정 감각을 더 누리고 싶어서 하는 문제 행동은 어느 정도 선천적인 면도 있으므로 감각조절기능의 문제행동을 무조건 억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고 소리에 민감한 아이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인 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경우에는 조용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 짧게나마 혼자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 감각자극을 끊임없이 하는 아이가 안전한 자세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손과 발을 이용하여 가벼운 체조 동작을 하게 하거나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놀이를 함께 해 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주세요.
- 소리에 민감한 아이, 특정 색깔, 질감, 숫자 등에 집착하는 아이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들이 아동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감각적 특성에 맞는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 무로함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행동

-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는 동안은 절대로 문제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과 재미있게 놀이를 할 때에도 문제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이의 하루 일과 중 아이 입장에서 무료하겠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연재이며 무엇인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 없는 시간이 연재인지를 분석하여 그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출 시켜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의외로 잘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문제행동 대처하기

부모나 교사는 아이에게 적응행동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문제행동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가 더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흔히 부모나 교사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 사례를 보고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공격행동은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를 상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 물기, 꼬집기, 때리기, 머리잡아당기기, 던지기 등의 행동을 보이는 심한 문제행동입니다.

- 원인을 찾기 위해 행동을 관찰합니다.
- 공격행동이 나타나면 힘껏 인아 주기 등을 통해 진정시킵니다.
- “친구를 때리면 아파요”라고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 일정시간 격리시키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박탈하는 등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합니다.
- 원하는 것을 바른 의사소통 방법으로 표현 하도록 가르치고 바르게 표현했을 때 크게 반응 하여 칭찬해주고 스티커를 줍니다.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는 스티커를 가져가야 합니다.

### 2 자해행동을 할 때

자해행동은 자신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꼬집어 상처를 내고 머리를 마루나 벽에 부딪쳐 상처를 내는 행동입니다.

- 심각한 자해행동일 때에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말고 제지합니다. 감정변화가 없는 침착한 표정으로 신속하게 제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지한 후에는 아편을 치기보다는 무시합니다. 자해행동에 당황하거나 흥분하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자해가 아닌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해가 관심 끌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해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여 자해행동 대신 할 수 있는 말을 가르칩니다.
- 관심을 보여주는 일정한 시간을 엄마와 함께 계획하거나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표시해 줍니다.
- 가능한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친구들과이랑 같이 놀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 긍정적인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 칭찬을 해 줍니다.
- 자해행동의 강도가 세거나 반복으로 상처가 염려될 때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자해행동을 지도할 때는 머리보호 헬멧을 씌우거나, 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두꺼운 양탄자를 바닥에 깔아두는 등 안전장치가 갖추어진 방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 3 반항적인 행동을 할 때

반항적인 아이는 흥분을 잘하고 과격하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반항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관심을 끌기 위해 반항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항하는 행동이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거라면 그 행동을 할 때 무시해야 합니다.
- 바람직한 말로 관심을 요구했을 때 보상을 해주면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 합니다.
- 놀이를 통해 감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놀이를 할 때는 규칙을 만들어서 안전한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반항적인 아이는 언어표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감정과 욕구를 연결하여 표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 4 고집을 부릴 때

대체로 단순한 고집이라기보다는 이해 부족으로 오는 결과일 때가 많으므로 원인을 분석해서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강제적으로 고집을 꺾어야 하나, 고집이 타당하다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아이와 사전에 이야기 하고 합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의 약속은 꼭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5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행동을 할 때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부리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심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기도 합니다.

-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다 울고 나면 왜 울었는지 물어보세요.
- 무작정 우는 것이 요구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세요.
- 요구가 있으면 말이나 신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 막 울기 시작할 때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랑 재미있는 놀이를 시작하면서, 마치 우는 아이가 없는 듯이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울음이 그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랑 놀아주세요.

#### 6 밖에만 나가면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대부분 너무 집안에서만 키운 경우 밖에 나가면 도망가려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주 외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세우고 집에서 연습하도록 합니다.
- 외출 전에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잘 지켰을 때 보상을 해주세요.
- 외출 시 잃어버릴 것을 대비하여 지문인식을 등록하거나 옷에 연락처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외출 시 잃어버릴 것은 것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7 상동행동(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몸을 앞뒤로 흔들기, 손가락 꼬기, 허공에 손가락 흔들기, 손뼉 치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리 지르기 등의 반복 행동을 말합니다. 자기 자극적 행동으로 아이가 심심하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상동행동은 늘어납니다.

- 혼자 있는 시간은 줄이고 놀이나 과제 수행시간을 늘려주세요.
- 통 속에 구슬 넣기, 고리 끼우기 등 간단한 과제와 놀이를 지도해 주세요.
-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찾아서 함께 놀아 주세요.
- 해야 될 과제를 했을 때 좋아하는 활동으로 강화해주면 문제행동은 감소합니다.

#### 8 반항어를 사용 할 때

반항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시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폐아의 경우 반항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속적인 언어 발달에 유리합니다.

- 부모가 가능하면 아이 입장에서 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 중에 노래를 부르거나 하여 아이의 언어적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말할 때 독촉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세요.
- 어색한 표현이라도 자주 쓰도록 해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 일상생활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을 연습시켜 주세요.

#### 9 주의가 산만할 때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은 오래 앉아서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누가 말을 해도 잘 듣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주의산만은 불안이나 사회성 부족 또는 호기심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 할 수 있게 해 주고 잘 했을 때는 칭찬해 주세요.
- 아이에게 요구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활동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시도함으로써 점차 나아질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칭찬을 해줌으로써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칭찬을 해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규제하는 방법을 쓰면 점진적으로 행동에 질서가 생깁니다.

#### 10 특정 사물이나 상황에 집착할 때

집착은 만 1세에 생겨나서 만 3~4세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5세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때는 엄마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 또는 성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폐아의 경우는 자폐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 집착하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변화를 주어 점차적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해 줍니다.
- 의도적으로 사물과 글자를 연결시켜 줍니다.
- 아이가 집착하는 것이 광고문구, 상표와 같은 문자, 숫자 등 학습과 관련된 경우 이를 학습에 활용하여 지도합니다.
- 친구를 초대해서 친구와 노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11 이상한 물질을 먹거나 물고 있을 때

발달장애 및 발달지체 영유아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만 24개월까지는 정상적인 행동이나 그 이후에는 문제행동일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이 알고 있는 근본적인 질환을 알고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가능한 합병증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며 아동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감독하고 철 결핍과 납 중독도 치료해야 합니다.
- 바른 음식 섭취 시에는 칭찬을 해 주고 이식증인 경우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음식 섭취 습관을 기르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통 속에 블록 넣기, 고리 끼우기 등의 간단한 과제나 장난감 돌리기, 누르기, 퍼즐 맞추기 등의 놀이 활동을 지도하며 보상을 주세요.
- 점차 흥미 있게 참여하는 활동 시간을 늘려 문제행동을 잊도록 유지시켜 주세요.

#### 12 정리·정돈을 못할 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치워주는 게 버릇이 되면 아이가 자란 후에도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지 못합니다.

-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 함께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 주세요.
- 제자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 수납함에 표시를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생활에서 반복해서 훈련하여 습관화되도록 하며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 13 실 새 없이 이야기하고 들어보는 것을 반복할 때

끊임없는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나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 아이가 사랑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칙을 정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요구카드를 만들어서 말 대신 카드를 내밀도록 해주세요.
- 물어보는 시간이나 횟수를 기록하여 잘 지키면 칭찬해 주세요.

## 4. 바람직한 훈육 방법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① 효과적인 훈육 방법

아이가 어리다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지나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아담만 친다고 아이의 행동이 바로 바뀌거나 고쳐지진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효과적인 훈육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 악속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훈육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 훈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했던 행동이나 위험한 물건을 만진다거나 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훈육을 합니다.

#### 잘못한 즉시 훈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칭찬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행동 후에 바로 훈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이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야단을 맞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훈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어린이이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맞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데려가서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화를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면 아이는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보다는 먼저 기분이 죽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어제는 훈육을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면 이전에 훈육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관되지 않은 훈육은 아이에게 혼란만 줄 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없습니다.

#### 바른 행동을 알려주세요.

훈육할 때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잘못을 지적한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훈육할 때는 지금 잘못된 행동 하나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훈육은 처벌이 아니라 가르침임을 명심하세요.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육은 아이에게 바른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서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 ②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10가지 방법

자존감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양육자의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은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제일 큰 영향을 줍니다.

#### 일관성 있는 규칙을 세워주세요.

- 아이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모든 규칙은 자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벌칙을 정해선 안 됩니다.
-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 몇 시간만이라도 TV를 끄고 휴대전화를 멀리해 주세요.

평온하고 비폭력적인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아이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신뢰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아이에게 늘 의견을 물어보세요.**

의견을 구함으로써 아이의 생각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함께 지내는 동안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해 주세요.**

- 아이는 어른이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는 것을 금세 알아챌니다.
-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 몇 시간만이라도 TV를 끄고 휴대전화를 멀리해 주세요.

**아이가 열중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재미를 느끼는 일을 함으로써 아이가 자신에 대해 파악하고 능력을 개발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아이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아이의 별난 행동을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세요.**

- 아이는 부모를 통해 자신을 평가합니다.
- 부모가 '너무 많은 질문을 퍼붓는 산만한 아이'가 아니라 '열성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에 대한 아이의 생각 역시 달라집니다.

**부정적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기꺼이 사과해 주세요.**

-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 부모라고 해서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주세요.**

- 아이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 아이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를 꼼꼼하게 챙겨 참석해 주세요.

**사랑이 담긴 쪽지를 남겨주세요.**

아이가 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 격려와 사랑을 담은 쪽지나 편지를 써주세요.

### ③ 내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칭찬

아이의 칭찬받았던 행동을 반복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방법에 따라 아이의 인격형성과 자아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칭찬은 어떻게 해주세요.

####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칭찬하기

칭찬의 말에 진심을 담아 아이의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칭찬하기

“청소 도와줘서 고마워”, “밥을 다 먹었네” 등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해 주세요.

#### 칭찬은 착한 행동 후에 바로 하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전 일을 칭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착한 행동을 한 직후 칭찬을 해주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기뻐합니다.

####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기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과정 중의 좋았던 점과 잘했던 점을 들어 칭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 하루에 한번은 꼭 칭찬하기

칭찬할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칭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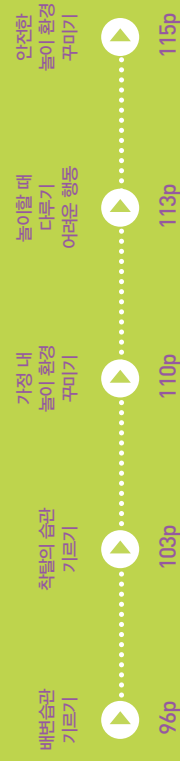
#### 사람들 앞에서 자주 칭찬하기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면 자신이 한 행동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인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 스킨십과 함께 칭찬하기

스킨십도 칭찬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며 칭찬을 하면 성장호르몬과 인전호르몬이 분비되어 아이는 사랑과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 인간생애환



## 05 일상생활

## ② 배변 훈련 첫걸음

배변 처리 과정은 영유아가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이므로 훈련 상황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의 신체가 배변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야 가능한데, 신체발달은 아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이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당장  
성공하지 않아도 돼!  
재촉하지 말자!

열심히  
견고, 뒤면서  
운동할게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는거야!



## 1. 배변습관 기르기

어릴 때부터 일관적인 교육과 연습의 기회를 통해 올바른 배변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매일 반복적인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하는 일상생활 기술입니다.

## ① 배변 훈련이란

배변 훈련은 화장실에서 배설하는 습관을 형성시켜 대소변을 가리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설 기관을 조절하는 괄약근은 약거나, 뛰거나, 움직일 때 쓰이는 다른 근육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기 때문에 신체 근육 중 가장 늦게 발달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의 신체적인 발달 과정에 따라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배변 훈련 시 양육자가 가지는 조급한 마음은 아이에게 배변 자체가 더럽고 불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배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 배변습관 형성을 위해서 매일 시간에 맞춰, 간격에 맞춰, 지속적으로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 자유롭게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손을 사용해서 쉽게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등의 움직임은 배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변 훈련을 하기 전 아이가 일상 생활에서 혼자서 작은 수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배변 훈련을 위한 준비

배변 훈련에 절대적인 시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변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항문 주위의 괄약근을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발달하는 생후 18개월~24개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신체발달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점검표를 통해 배변 준비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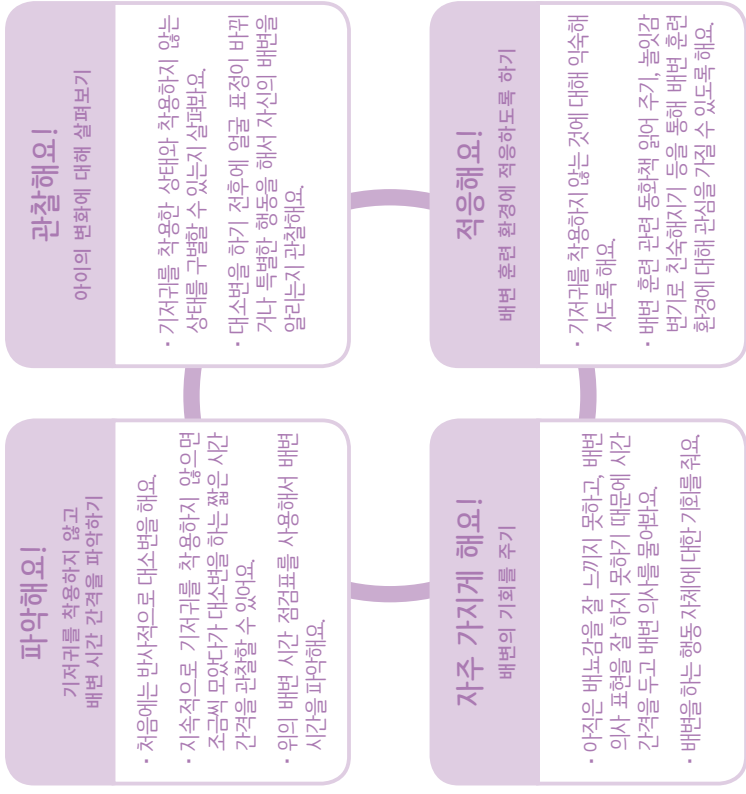
아래의 점검표 중 3개 이상이 관찰되면 배변 지도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 배변 준비 점검표                                                   |                                                                  |    |
|-------------------------------------------------------------|------------------------------------------------------------------|----|
| 번호                                                          | 내용                                                               | 기록 |
| 1                                                           | 움직임에 제약이 없고 평지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    |
| 2                                                           | 혼자서 5분 정도 서 있을 수 있어요.                                            |    |
| 3                                                           | 기저귀를 착용해 주지 않으면 대소변을 모으다가 보는 시간 간격이 확인돼요.                        |    |
| 4                                                           | 대소변을 볼 때 공공대거나 뜨그리고 앉은 등 표정이나 움직임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    |
| 5                                                           | 기저귀나 속옷이 축축한 것을 알고 찜찜하다고 느껴요.                                    |    |
| 6                                                           | 대변을 보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있어요.                                            |    |
| 7                                                           | 부드럽고 모양이 잡힌 대변을 봐요.                                              |    |
| 8                                                           | 속옷을 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과 같은 어른들의 화장실 습관에 관심을 가져요.                      |    |
| 9                                                           | 완전하게는 할 수 없지만 아이의 의지로 괄약근을 조절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배변 간격이 2시간 이상 돼요.) |    |
| 10                                                          | 혼자서 바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    |
| 11                                                          | 두 가지 심부름을 시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    |
| 12                                                          | 자기의 물건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거나 좋아하는 소유욕이 있어요.                             |    |
| ※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 해 주세요.<br>출처: 신의진(2011), 아이 심리 배과, 발췌 후 수정함. |                                                                  |    |

또한 점검표의 항목 중 3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아도 신체적인 움직임이 원활한 (혼자 걷기, 서기 가능) 만 4세 이상 유아의 경우에는 배변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배변 훈련 초기 단계

| 아동명      | 날짜 |    |    |
|----------|----|----|----|
|          | 아침 | 점심 | 저녁 |
| 시간       |    |    |    |
| 식사량      |    |    |    |
| 수분 섭취량   |    |    |    |
| 소변 시간 기록 |    |    |    |
| :        | :  | :  | :  |
| 대변 시간 기록 |    |    |    |
| :        | :  | :  | :  |
| 특이점      |    |    |    |



## ⑤ 배변 훈련 실행 단계

|                          |                                                                                                                                                                                                                                       |
|--------------------------|---------------------------------------------------------------------------------------------------------------------------------------------------------------------------------------------------------------------------------------|
| 배변이<br>나오는 감각<br>느끼도록 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변이 나올 때 한 번이라도 '똥아' 하고 나오는 감각을 체험하게 되면 더욱 쉽게 기릴 수 있게 됩니다.</li> <li>• 밤 먹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난 후 소변을 누이는 등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 감각을 익히도록 합니다.</li> </ul>                                                      |
| 기저귀<br>착용하지 않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변 감각이 파악되면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도록 합니다.</li> <li>•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과 착용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면 감각적으로 배뇨감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li> </ul>                                                                                   |
| 배변 리듬<br>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는 하루 3회 정도 배변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다가, 점차 늘려줍니다.</li> <li>•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아이가 긴장하게 되니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li> <li>•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참았다가 한꺼번에 용변을 보게 되면 방광에 소변을 모아 둘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li> </ul> |
| 변기와<br>친해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용 변기를 따로 준비하도록 합니다.</li> <li>• 처음에는 의자처럼 변기를 사용하면서 친숙해지도록 합니다.</li> <li>• 배변습관이 어느 정도 형성되거나 아이가 일반 변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화장실에 있는 일반 변기에 유아용 받침대를 부착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li> </ul>                     |
| 배변 의사표현<br>방법 정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변 의사를 아이가 선호하는 표현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몸짓, 그림, 소리 등)</li> <li>•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 부모님이 아닌 다른 타인이 들어도 알 수 있는 표현법으로 정합니다.</li> </ul>                                                                     |
| 실수도<br>아단치지 않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변 가리기는 많은 실수를 동반합니다. 실수를 하면서 자기만의 배뇨감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배변습관이 만들어져 갑니다.</li> <li>• 실수를 하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아단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li> </ul>                                                  |
| 꾸준히 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변습관 지도는 장기적인 관점의 훈련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꾸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li> </ul>                                                                                                                                  |
| 성취감<br>느끼도록 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변 시 '쑤'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신호는 아이에 따라서 배뇨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li> <li>• 배변 훈련 시 옷을 간편하게 입혀 주어서 손쉽게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도록 합니다.</li> <li>• 배변 성공 시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도록 합니다.</li> </ul>                  |

### 질문있어요

#### 속옷 대신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해도 되나요?



팬티형 기저귀



일반 속옷



방수용 속옷

팬티형 기저귀는 쉽게 착탈의가 가능해서 속옷 대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옷이 소변으로 젖게 되면 계속 축축하고 불편한 감각을 느끼게 되지만, 기저귀는 소변을 보면 바로 흡수되어서 소변으로 인한 축축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느끼기에 기저귀와 속옷의 촉감은 많이 다르므로, 배변 훈련을 위해서는 기저귀 착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아야 하며, 팬티형 기저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속옷이 너무 자주 젖는 것을 방지하도록 약간의 흡수층이 있는 방수용 속옷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변과 대변 어느 것부터 먼저 가려야 하나요?

아이가 먼저 표현하거나 느끼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변에 대한 느낌을 소변보다 좀 더 정확히 표정으로 나타내고, 대변을 본 후 불편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변 ➡ 소변(낮) ➡ 소변(밤)의 순으로 습관을 형성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밤중에 소변 실수가 매우 잦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중에 소변을 가리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다가 배뇨감을 느끼고 잠에서 깨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중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소변을 보는 습관을 기르고, 밤중에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다가 뒤척임이 심할 때는 배변을 하고 싶든지 살짝 물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⑥ 대안적 배변 지도 방법

아동기가 지나도 중추 신경계의 이상으로 배뇨감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발달적인 요소로 인해서 배변 가리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배뇨 불안감으로 인해 배변 훈련에 대한 실패를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배변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
| 기저귀 착용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제발달 지연에 의해 배변 훈련이 되지 않는 경우 기저귀를 신체 상황에 맞게 착용하도록 합니다.</li> <li>- 언더웨어형: 유아들의 팬티형 기저귀와 비슷한 형태로써,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li> <li>- 점착형: 유아들의 점착식 기저귀와 비슷한 형태로써,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ul>                                                                                                                                                                                                                                                                                                                                                                                                                                                                                  |
| 배변 시간 정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뇨감을 잘 느끼지 못해서 배변 실수가 잦은 경우 알람 등을 이용해서 배변 시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li> <li>• 배변 시간마다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li> </ul>                                                                                                                                                                                                                                                                                                                                                                                                                                                                                                                                                              |
| 배변 장소 정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변 장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의 경우 일정한 배변 장소를 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li> <li>• 기저귀 착용 시에도 편안한 상태에서 기저귀를 착용하고 교체하도록 장소를 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li> </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 치료: 유분증, 유뇨증(대변이나 소변을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으로 보는 경우) 등의 경우 진단을 통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야뇨 경보기: 야뇨증(밤에 빈번한 소변 실수)이 심한 경우 수분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아이를 깨우게 하는 장치입니다.</li> <li>• 휴대용 일회용 변기: 외출 시 낯선 장소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ul> <div>     </div> <div> <p>휴대용 변기   휴대용 변기   휴대용 변기   휴대용 변기</p> <p>출처: 릴라이언스   출처: 다이캐리포트   출처: 아이쉬</p> </div> |

## 2. 착탈의 습관 기르기

착탈의 습관은 영유아의 독립성 및 사회성 발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야 합니다.

### ① 신발 신고 벗기

#### 신발 선택하기

영유아가 막 걸기 시작했을 때 신발을 신기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스스로 신발을 만지고, 신고, 벗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발 선택이 중요합니다. 색감이 화려하고 예쁜 신발도 좋지만, 첫 신발 선택 시 아이가 효율적으로 신고 벗기를 할 수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 tip 이런 신발을 신겨 주세요!

- 부착물이 없는 신발: 벨크로를 부착하는 신발! 처음에는 신기 어려워요!
- 바닥이 평평하고 형태가 접혀있는 신발: 얇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발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신기 어려워요!
- 발뒤꿈치 부분이 세워져 있는 신발: 신발뒤꿈치가 평평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신기 어려워요!

#### 신발 신고 벗는 장소 정하기

신발을 처음 신기 시작하면 실내외에 상관없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발을 신고 벗는 장소를 정해 주면 신발을 신고 벗는다는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신발을 신고 벗고자 하는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발 신고 벗는 장소에 아래와 같은 낮은 의자나 받침대를 두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매트를 배치해 줄 수 있습니다.

tip



**이런 장소도 좋아요!**

처음에는 바닥에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는 것보다 약간의 높이감이 있는 곳에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 신발 신고 벗는 과정

신발을 신고 벗는 순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유아는 발과 손의 움직임 간에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고 벗는 각 과정을 행동으로 직접 시범을 보여 주면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부착물이 없는 신발 신기



- 1 약간의 높이가 있는 의자에 착석하기  
일어난 자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정확한 손과 발의 동작을 위해 앉아서 하는 것이 좋아요.



- 2 두 손으로 신발의 볼을 양쪽으로 잡아 벌리기  
신발의 볼을 넓게 벌리는 행동 자체보다 발을 놓아야 하는 과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 3 한쪽 발을 신발 속으로 집어 넣기  
아이가 움직이기 편안한 발을 들어서 신발 속에 넣어요.



- 4 오른손(영·유아의 우세 손)으로 신발 뒤꿈치 잡기  
발을 넣은 후 신발의 뒤꿈치를 잡고 발의 앞쪽이 신발 속에 정확히 들어가도록 해요.



- 5 신발 뒤꿈치를 잡아당겨 발 완전히 넣기  
발의 뒤꿈치를 잡아당겨서 발의 뒤쪽이 신발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요.



- 6 나머지 한쪽 발도 위의 단계로 동일하게 신기  
재미있는 놀이 형태로 한쪽 발만 먼저 신기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아요.

### 부착물이 없는 신발 벗기



- 1 오른손(영유아의 우세 손)으로 신발 뒤축 잡기  
아이가 움직이기에 편안해 하는 손으로 신발의 뒤쪽을 잡도록 해요.



- 2 신발 뒤축을 아래 쪽으로 잡아당기기  
신발의 뒤쪽을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발을 빼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요.



- 3 발뒤꿈치 빼기  
발의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신발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해요.



- 4 신발 접은 손을 앞으로 밀어내어 발 빼기  
신발을 잡고 있던 손을 앞으로 밀어 주며 신발에서 발을 빼요.

### 부착물이 있는 신발 신고, 벗기



- 1 벨크로 떼기  
벨크로를 떼는 것에는 정교한 힘이 필요하므로 벨크로의 앞 쪽 부분을 조금 떼어 주도록 해요.

- 2 위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거나 벗기

- 3 벨크로 붙이기

벨크로를 떼는 것보다 붙이기는 쉬우므로 붙이기는 위치만 정확히 알려 주면 돼요.

##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 신발을 먼저 벗어요!                                                                                    | 재미있는 놀이가 되게 해요!                                                        |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 편한 신발만 찾지 않아요!                                                                           |
|------------------------------------------------------------------------------------------------|------------------------------------------------------------------------|--------------------------------------------------------------------------------------------------------|------------------------------------------------------------------------------------------|
| 티셔츠 입고 벗기를 좋아하는 아이, 양말 신고 벗기를 좋아하는 아이!<br>아이마다 옷 중에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니 아이가 좋아하는 옷의 부분을 입고 벗도록 해 주세요. | 신발 신고 벗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실내에선 덧신, 양말 신어 보기, 인형에게 신발과 양말을 신겨주기 놀이를 하는 것도 좋아요. | '신발 신자, 벗자'라는 말은 아이에게 처음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신발을 신고 벗는 단계에 맞춰 'OO야, 신발의 뒤 쪽을 잡아 보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아요. | 뒤가 톱터 있는 신들형 신발은 신고 벗기에는 편리하지만, 신발을 제대로 신고 벗는 습관을 형성해 주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적절히 사용해 주세요. |

## 2 옷 입고 벗기

### 준비하기

의복은 영유아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기에 편리하고, 입거나 벗기 쉬운 옷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 입고 벗기를 연습하기 전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옷을 가져오거나 옷을 선택하려는 관심을 보일 수 있나요?

둘째,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 간단한 동작을 협조할 수 있나요?

셋째, 옷을 입거나 벗으라고 말하면 혼자서 해보려고 시도할 수 있나요?

아직 협조하거나 시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먼저 옷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tip

이런 옷으로 연습해보세요!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옷 정해주는 것이 좋아요!

• 헐렁하며 소매가 넓은 옷



• 허리 부분에 신축성이 있는 옷



### 옷 입고 벗는 과정

옷을 입고 벗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가 편안하게 느끼는 옷의 부분(속옷, 상의, 하의 등)이 각기 다르고,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의 범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옷을 입고 벗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선호도, 운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01  
02  
03  
04  
05  
06

### 상의 입기



1 상의의 앞, 뒤를 구분해서 바닥에 놓아주세요.



2 상의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요.



3 상의의 목 부분을 찾아서 양손으로 약간 벌려 주세요.



4 벌린 상의의 목 부분에 머리를 끼워서 넣어요.



5 오른손으로 상의를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왼팔의 소매 구멍을 찾도록 해요.



6 왼팔을 소매 구멍에 넣어요.



7 같은 방법으로 오른팔도 소매 구멍을 찾아 넣어요.



8 구겨져 있는 상의를 허리방향으로 내려서 정리해요.

### 상의 벗기



1 양 손으로 상의의 제일 아래쪽을 잡아요.



2 잡은 손을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요.



3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릴 때 팔을 위쪽 방향으로 끝까지 퍼서 올려요.  
(이 동작만으로 민소매, 짧은 소매의 옷을 벗을 수 있어요)



4 목 부분의 구멍을 찾아 얼굴을 빼요.



5 긴 소매 상의의 경우 양쪽의 소매 끝을 잡아당기는 과정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해 주세요.

## 하의 입기



1 하의의 앞, 뒤를 구분해서 바닥에 놓아주세요.



2 하의의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아요.



3 하의의 다리 통 쪽으로 오른다리를 넣으면서 허리부분을 잡고 있는 양손을 위로 잡아 당겨요.



4 남은 한쪽 다리도 다리통 쪽으로 넣으면서 허리 부분을 잡고 있는 양손을 위로 잡아당겨요.



5 하의의 허리 부분을 잡고 있는 양손을 위로 힘껏 당겨요.



6 일어서서 하의를 위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구겨진 옷을 정리해요.

## 하의 벗기



1 일어서거나 바닥에 앉은 자세 중 편한 자세로 시작하도록 해주세요.



2 하의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요.



3 하의를 잡은 채, 양손을 무릎 아래 쪽으로 내려요. (배변 시 하의를 벗을 때에는 무릎까지만 옷을 내리게 해 주세요.)



4 하의의 다리 통에서 한 발을 들어서 빼요.



5 나머지 한 발도 하의의 다리 통에서 들어서 빼요.

## 부착물 및 기타의복 착용하기

### 1 단추



큰 단추에서 작은 단추로! 단추를 밀어 넣거나 당겨 올리는 동작으로 풀고 잠그는 연습을 하도록 해 주세요.

### 2 지퍼



기포, 세로 방향의 지퍼 중 아이가 더 편하게 조작하는 방향을 살펴 본 후 연습하게 해 주세요.

### 3 벨크로



벨크로가 떼어지도록 힘을 주는 방향에 대해 알려 준 후 연습하게 해 주세요.

### 4 모자



모자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억지로 모자 쓰기를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형태가 잘 잡혀 있는 모자로 연습하게 해 주세요.

### 5 양말



양말은 벗기부터! 발이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양말목 부분이 잘 들어나는 신축성 있는 것 뒤꿈치 절개 부분이 없이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연습하게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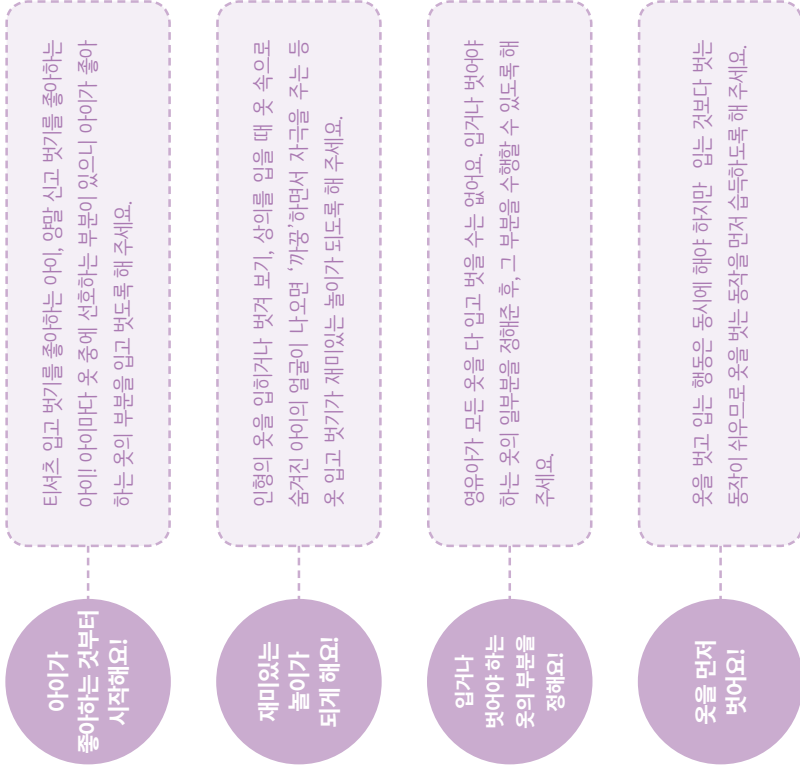
tip

## 옷을 입고 벗을 때 유의해 주세요.

- 상의를 입고 벗을 때 머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목 부분의 구멍이 크거나 어깨 부분에 단추나 벨크로가 있는 옷을 이용해요.
- 옷을 입을 때 옷의 앞, 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 하의 벗기는 화장실에서 배변 훈련 시에도 연습하도록 해 주세요.
- 옷의 부착물을 조작할 때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해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손의 움직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폐성장애 영유아의 경우 일상생활에 대해 제한적이고 고착화된 관심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벗는 동작 시 아이가 싫다고 느끼는 움직임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 3. 가정 내 놀이 환경 꾸미기

장애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놀고 싶고, 놀기 쉽고, 놀면서 배우는 놀이 환경을 꾸며줌으로써 발달장애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흥미를 북돋울 수 있습니다.

### 1 놀잇감 선택 방법

아동들은 연령이나 발달 정도에 따라 호기심을 보이는 놀잇감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바깥 활동이나 또래와의 접촉 경험이 아직 부족한 발달장애 영유아 아동들에게 놀잇감은 실제 생활과 다양한 자극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 좋은 놀이 파트너 되어 주기

- 아동이 놀이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동이 놀잇감에 접근하거나 관심을 보이면 아동이 주도하는 놀이에 참여해 보세요. 아동이 선택한 놀잇감에 관심을 보여 주고 자연스럽게 마주 보고 앉아 눈을 맞추며 아동의 놀이 파트너가 되어 주세요.
- 놀이를 시작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아동의 놀이동작이나 언어표현을 그대로 모방해 보세요. 아동이 관심을 보이면 동작과 언어에 조금씩 살을 붙여간다는 느낌으로 놀이를 확장해 보세요.
- 아동의 놀이에 의성어나 의태어, 감탄사를 붙여보세요. 아동이 관심을 보이면 스포츠 중계하듯이 아동의 놀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 주세요.

#### 연령별 놀잇감 선택하기

##### 0세 “누워서 만지작거리고 뽀뽀 노는 아동”

영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자신의 손과 발을 만지작거리거나 뽀뽀 합니다. 그래서 0세 아동을 위한 놀잇감 선택의 기준은 안전이어야 합니다.



##### 모빌

후과 뼈의 명료한 시각자극을 주는 모빌이 좋아요.



##### 형질 인형

물고 뽀뽀나 만지작거리며 놀기에 좋아요.



##### 떨랑이, 방울공

부드러운 장각 자극을 주는 놀잇감이 좋아요.

## 2~3세 “혼자 해 보고 생각하며 노는 아동”

무엇이든지 혼자 해보려고 노력하며 놀이가 더 다양해지며 성정하게 됩니다. 놀이 상대자와 상호작용하며 언어로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 축삭 놀이감

다양한 축삭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놀이감이 좋아요.



### 운동 놀이감

규칙을 이해하며 주고받는 운동 놀이감이 좋아요.



### 변별하기 놀이감

인지 개념을 배우는 놀이감이 좋아요.

## 3~4세 “어른을 흉내 내고 친구와 노는 아동”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놀이감이 필요하며 완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을 흉내 내면서 역할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며 친구와 어울려 노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 소꿉놀이

어른들의 역할을 흉내 낼 수 있는 놀이감이 좋아요.



### 캐릭터 놀이감

캐릭터로 상황을 구성할 수 있는 놀이감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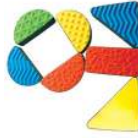


### 이야기책

심화의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이야기책이 좋아요.

## 5~6세 “상상하고 새롭게 구성하며 노는 아동”

정형화되지 않은 블록으로 상상 속의 모양을 만들며 놀 수 있게 됩니다. 또래친구들끼리 규칙을 새롭게 구성하며 놀 수 있고 추상적인 기호와 글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 블록, 썸기 놀이감

기상의 모양을 구성하는 조각 놀이감이 좋아요.



### 소근육 놀이감

섬세한 소근육 활동을 도와주는 놀이감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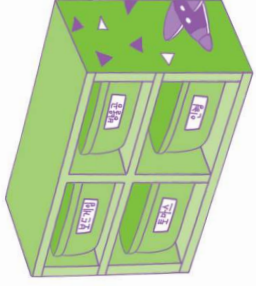


### 한글

익숙한 글자나 낱말이 소개된 읽을거리가 좋아요.

## 2 놀이감 정리와 보관 방법

아동들의 훌륭한 놀이 파트너가 되어 적절한 놀이감으로 놀이를 진행하는 것 이상으로 놀이감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놀이감은 항상 정해진 공간에, 정해진 상자에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너무 큰 상자에 한꺼번에 담기보다는 놀이감의 종류별로 나누어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상자와 안에 담긴 놀이감을 아동 스스로가 손쉽게 꺼낼 수 있는 디자인과 선반을 준비해 주세요.
- 상자에 담긴 놀이감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름표나 그림표를 붙여 주세요.

## 4. 놀이할 때 다루기 어려운 행동

영유아들은 발달의 양상에 따라 유사한 놀이 형태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놀이감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들마다 놀이감에 대한 흥미와 선호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여 주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보다 적절하고 즐거운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1 놀이 시 주의 사항

- 아동의 눈높이에서 놀이 환경과 놀이감을 살펴봐 주세요.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놀이 환경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놀이는 학습이나 특별한 활동이 아닌, 일상의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아동이 주도권을 갖고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따라가 주세요.



### 새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놀잇감에 흥미가 없다는 것은, 놀잇감이 너무 시시하거나 너무 낯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새 놀잇감을 강요하기보다는 아동이 직접 선택하는 놀잇감으로 놀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간단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 놀잇감을 던지기만 해요.

던져보고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즐기는 것 또한 놀잇감을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땐 던지기 놀이, 소리자극 놀이로 전환해주시면 좋습니다. 던지기와 다양한 소리 즐기기 놀이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 조립하기, 쌓기 놀이에서도 또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놀잇감 정리할 때 떼를 쓰고 싫어해요.

아동이 충분히 놀지 못했는데 정리를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 주세요. 3세경 부터는 놀잇감 정리를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놀이시작 전 정리규칙을 일러주고 (“이 노래 소리가 나오면 정리할거야”) 끝나기 1분 전에도 미리 알려주세요. (“이제 좀 이따가 정리 노래가 나올거야”)

### 놀잇감을 임의로 빨기만 해요.

영아들이 사물을 빨며 탐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늦어 아직 구강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동들이 성숙함에 따라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2 놀잇감 대여 방법

우리 동네 지역사회의 기관을 활용해 보세요.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 안내, 공연 및 놀이프로그램 실시 및 안내, 놀잇감 무상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지역별)
-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지역별)
- 건강가정지원센터(지역별)
- 장난감도서관 대여사업기관(지역별)

## 5. 안전한 놀이 환경 꾸미기

영유아들은 보호자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됩니다.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많은 반면 신체발달이 완성되지 않아서 행동이 미숙하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놀이에 집중하다보면 주위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 1 가정에서의 안전한 놀이 환경 꾸미기

- 아이가 주로 놀이 활동을 하는 곳에 유아용 매트를 설치해 주세요.
- 문틈에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문 닫힘 방지 고정장치를 부착해 주세요.
-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장치를 부착해 주세요.
- 멀티탭 콘센트와 같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전기선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주세요.
- 칼, 가위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아이 손에 닿지 않도록 서랍에 넣고 서랍잠금 장치를 부착해 주세요.
- 창문, 베란다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세요.



| 안전장치 |

## ② 아이와 함께 안전한 놀이 환경 꾸미기

아이와 함께 안전한 놀이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평상시에 위험한 물건이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 영유아가 바람직한 모방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이 먼저 안전한 생활모습을 보여 주세요.
- 가정이나 실내에서는 뛰어다니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행동에 대한 규칙을 정해주세요.
-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세요.

## ③ 아이가 다음의 사항을 지키면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TV나 책장과 같은 무거운 가전제품 혹은 가구에 올라가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 베란다나 창문에 기대거나 몸을 밖으로 내밀지 않습니다.
- 큰 조각의 젤리나 사탕 또는 음식을 한 번에 삼키지 않습니다.
- 문을 열고 닫을 때,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물기가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 어른 없이 혼자서 욕조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 집에 불이 났을 때 밖으로 대피하는 길은 두 가지 이상 알아둡니다.
- 냉장고, 세탁기 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장난감은 항상 정리함에 보관합니다.

# 06

## Part

### 권리옹호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120p

일상생활에서  
자해를  
당했을 때



126p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  
장에 특성에 맞게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와 함께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및 실종 시  
대응 방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대응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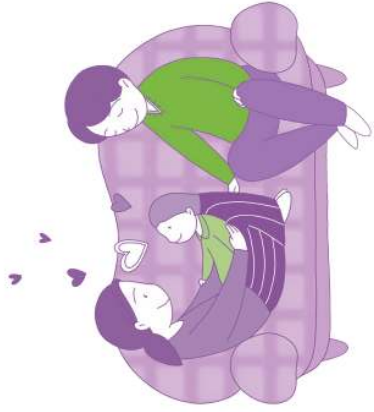
- 성희롱: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성추행: 성희롱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
- 아동 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포래 성폭력: 포래간에 일어나는 화장실 훔쳐보기, 치마를 올리거나 바지를 내리는 행동, 특정한 신체 부위를 놀리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 몸을 만지는 행동, 야한 그림이나 동영상 보여 주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폭력행위

#### 양육자가 함께하는 예방과 교육

- 애정표현과 성폭력 행동 구분하기  
아동은 애정표현과 성폭력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자의 긍정적인 애정표현을 통해 애정표현에 대한 좋은 느낌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표현하기  
나의 몸은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질 경우 ‘안 돼’, ‘싫어’라고 바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 어른을 대하는 합리적 태도 익히기  
사회통념상 아동은 어른에게 순종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어른에 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종이 아닌 불쾌한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합리적 태도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해바라기센터(지역별 설치):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 체계 구축 통합서비스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지역별 설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지원



### 1.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아이를 키우다보면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 장래 특성에 맞게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면 양육자도 아이도 위험한 상황을 잘 해결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성폭력 피해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 성폭력이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 일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② 가정폭력, 방임, 학대로 우리 아이가 힘들어해요

### 가정폭력이란?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 장애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폭행(장애인차별상담사례)

활동보조인이 장애아동의 도전행동(큰길을 막고 누워서 울고 소리치는 행동이 자주 발생)에 대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재하고, 실제로 때리거나 억지로 끌고가는 등의 폭행이 발생하여 장애인차별상담소에 어머니와 중개기관으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면서, 장애아동의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의 도전행동에 대하여 이미 상습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활동보조인에 게도 자녀가 도전행동이 있을 경우 때려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많은 양육자가 사랑으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장애로 인해 심각한 자해행위를 한다거나 도전행동을 하는 경우, 일부 양육자의 경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서로도 행동을 제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폭행은 폭행일뿐 절대 훈육이 될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7항)
- 아동학대의 유형(「아동복지법」 제29조)
  -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 정서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행위,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가학적 행위
  - 성학대: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방임 및 유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물리적 방임] 아동의 유기 및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양육태만

- [정서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지지, 보호의 결핍, 부모의 애정결핍, 무시
- [교육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 [의료적방임] 예방 접종 또는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성방임] 부모, 성인의 성관계 또는 성관례매체 등에 노출되도록 방치



###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관련해 고민해야 할 것들

#### ① 장애아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장애아동이 장애로 인해 이해와 판단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결국 폭력과 학대는 한사람의 인격체로 장애아동을 인정하지 않고,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사람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② 양육자의 태도가 주변인들의 태도를 결정

양육자 스스로 장애를 갖고 있는 내 아이의 자기결정권과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내 자녀와 관련된 사람들(활동보조인, 교사 등)도 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 ③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 아이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실종예방)

- 아이에게 해주어야 할 것
  - 평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기: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교육하기
  - 아이에 대한 정보 표시해주기: 신상정보가 있는 목걸이, 이름표, 팔찌 등 부착하기
- 물건을 자주 떼거나 빼버리는 아동의 경우 가방 안쪽, 신발 바닥, 외투 안쪽, 바지 주머니 등에 신상정보를 표시하기
- 엄마가 안 보일 때 그 자리에 멈추기: 함께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경우 무조건 그 자리에 멈추기를 반복해서 교육하기(실제 멀리서 지켜보면서 시연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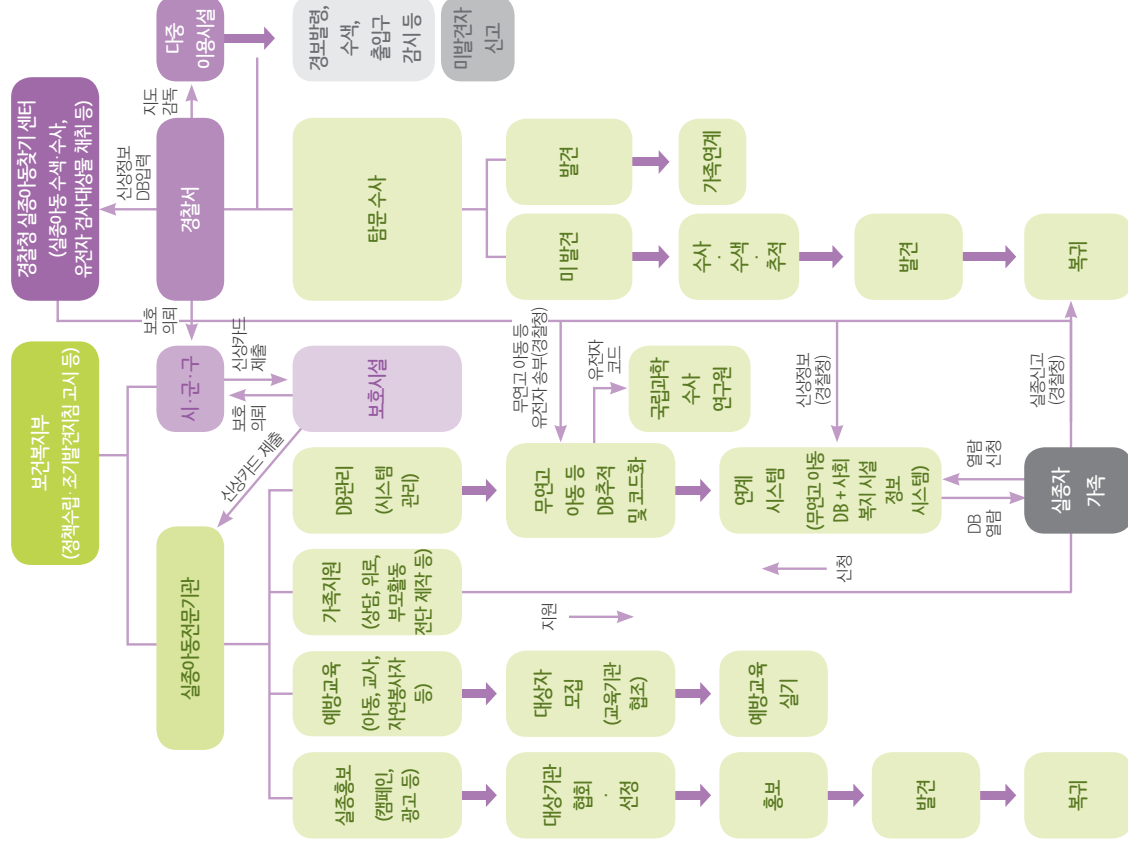
- 도움 요청하기: 주변에 과자 등 아이들을 위한 물건을 파는 곳으로 돌아가기, 경찰차 마크와 경찰 복장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 주변에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 양육자가 해야 할 것
  - 평소시 아이와 자주 가는 곳에서 아이와 행동반경과 특성을 파악하여 기록하기
  - 평소시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은 안전한 길로 되도록 연습시키기
  -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과 가족 이름을 알려주기
  - 외출전에 아동에게 무엇을 타고, 어디에 내려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는지 함께 확인하기
  - 외출전 아이의 옷 종류와 옷색깔, 키, 몸무게, 버릇 등을 기억하거나 기록해두기
  - 정기적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기
  - 아이를 타인에게 맡길 경우 아동에 대한 주의·특이사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 항상 아이를 잃어 두고 양육자의 시선안에 두기
  - 익숙한 장소에서도 아동을 혼자 두지 않기
  - 평소 집 근처의 편의점, 옷가게, 지하철역의 역무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아이를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에 대한 정보 공유하기
  - 지문등 사전등록제: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의 경우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을 방문하여 등록하기

**tip** ↑ 사전등록 신청 후 (안전 Dream 홈페이지 - [www.safe182.go.kr](http://www.safe182.go.kr)) 방문하여 방음처리

## 아이가 기를 이었을 때(신종시 대응방안)

- 찾아보기
  - 집안에서: 집안 구석구석(장롱 속, 침대 밑) 살펴보기
  - 집 근처에서: 인근에 자주가는 경로를 따라가며 주변 사람에게 탐문하기
  - 공공장소에서: 평소 애아이가 좋아하는 소리, 냄새, 색깔, 장소 등 살펴보기
  - 인근 CCTV 확인하기
- 신고하기
  - 경찰청 실종이동찾기 센터 182
  - 아동의 신상정보 제공

#### 4 지적장애 아동 가출·실종 처리 과정



출처: 보건복지부위탁 아동양육기관: 일반학교, 특수학교, 생활시설,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신중예방법 교육 메뉴얼  
(www.missingchild.or.kr)

## 2.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를 이유로 우리는 많은 차별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그냥 지나치면 바뀌지 않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실제 장애 차별사례를 활용하여 일상에서의 차별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① 장애를 이유로 치료 또는 진료를 거부당했을 때

유진이 엄마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에게 충치가 생겨서 치과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소통이 어렵긴 하지만 도전행동이 많지 않은 유진은 엄마가 생각하기에 치료 치료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이다. 그런데 의사는 유진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런 아이는 치료할 수 없다면서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한다. 보통 어린아이들의 치과진료는 모두 어려운 것으로 하는데, 유독 유진이 더 힘들 것이라는 건 차별인 것 같다는 생각에 상담소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 ➡ 차별인가요?

네.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하는 진료거부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 ➡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진료거부 사실을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입학 거부당했을 때

진아는 올해 6살이 되면서 아파트 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원장선생님은 현재 특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방법을 찾아서 진아가 입학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들 사이에 장애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아가 입학하면 선생님이 장애인들을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입학을 반대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장선생님은 다른 양육자들의 태도에 난감해 하면서 진아 엄마에게 혹시 다른 유치원으로 가면 안되는지 물어왔습니다.

#### ➡ 차별인가요?

네.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의 입학 거절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장은 장애아동의 입학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과 장애인관련자(양육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모두 법률위반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 ③ 유치원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진아는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진아를 위한 교구와 진아의 유치원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보조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아를 위한 교구나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 ➡ 차별인가요?

네.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의무사항입니다.

➔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유치원에 먼저 정당한 편의제공의 책임을 알리고 그림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인적지원과 물적지원 모두를 포함한 지원을 말합니다.

**4 장애아동의 현장학습 참여를 배제할 때**

내일은 민우의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을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유치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사는 민우의 엄마에게 내일 현장학습에 나가 제일 어린 자녀들과 민우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아주 어린 3~4세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어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데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아외에 나가면 교사수가 부족해서 장애있는 친구를 지원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보내고 싶으시면 엄마가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차별인가요?

네.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에서의 배제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학습 참여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와 비용 부담은 모두 교육기관의 책임입니다. 어머니가 참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유치원에 먼저 현장학습 참여 배제는 차별임을 알리고 그림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 방치했을 때**

민우 엄마는 오랜만에 근처를 지나다가 유치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도에서 민우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려고 교실을 창문너머로 바라본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선생님과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데, 민우만 혼자 한 쪽 구석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사에게 왜 민우만 혼자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교사는 민우가 가위질도 잘 못하고, 종이접기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부수업은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했습니다.

➔ 차별인가요?

네.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아동은 장애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교육과정에서 배제시킬 수 없으며 장애정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방치하는 행위는 차별인 동시에 아동학대입니다.

➔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유치원에 먼저 문제제기하고 그림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6 아이에게서 괴롭힘 흔적이 발견됐을 때**

- 어느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교사에게 묻자 교사는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아이가 갑자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아침마다 유치원 앞에서 몸을 버텨기며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①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을 때

평소 아이의 자해습관을 잘 파악하여 실제 아이 스스로에 의한 것인지 외부에 의한 것인지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외부의 의한 상처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유치원에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② 불안감과 거부감을 표시할 때

평소에 하지 않던 불안감과 거부감의 표시는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교사와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장애인차별상담소 등 권리옹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폭언, 폭행, 따돌림 상황이 확인됐을 때

유치원에 먼저 신고를 하고 유치원측과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리옹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1 근거리 초등학교의 입학 거부당했을 때

승우는 집에서 5분거리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한다. 입학전 겨울방학에 미리 도움반 선생님을 만나 입학준비를 하기위해 상담을 요청했다. 처음에 반갑게 오라고 이야기했던 도움반 교사는 승우의 장애정도를 본 후 엄마에게 특수학교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면서 해당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해서 도움반을 추가설치해야지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 차별인가요?

네.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아동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입학 여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입학거부행위가 위법임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관할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차별대응을 도와주는 곳

- 권리옹호기관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1577-1330(전국공통)
  - 경기도장애인권센터(경기도 위탁기관): 1522-0031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위탁기관): 1577-5364(전국공통)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서울시 위탁기관): 1644-0420
  -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02-3013-1366
- 장애인인권단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02-723-4804

2 차별대응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인권침해 등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청(교육청, 시청 등)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 교육청 신문고: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요청: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 경찰서 형사 고소, 고발, 진정: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싶은 경우
- 민사소송: 나의 손해를 보상받고 싶은 경우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3).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사용 지도서. 서울: 저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서울: 저자.
- 김구수, 박승순, 김선혜, 권가영 (2014). 보육학개론. 서울: 공동체.
- 김영태 (2014). 장애 아동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활용을 위한 탐색.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2(1), 1-22.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6). 예비(0-2세)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북. 대구: 저자.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6). 유치원(3-5세)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북. 대구: 저자.
- 대구광역시교육청 (2014). 특수교육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북. 대구: 저자.
- 박은혜, 김영태, 김정연 (2008). 파라다이스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초능력평가. 서울: 파라다이스북지재단.
- 서울시북지재단 (2014). 발달 장애인가족 가이드북. 서울: 저자.
- 성시연, 임정현, 김영태, 박은혜 (2013).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잠재 수요 예측 연구-아동기 및 후천성 성인기 의사소통 장애를 중심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연구, 1(1), 1-24.
- 신의진 (2011). 아이 심리 백과. 서울: 걷는 나무.
- 양명희 (2016). 행동수정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 2편. 서울: 학지사.
- 이윤숙, 전병운 (2010).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연구 동향 분석: 2000~2009년 논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5(2), 39-67.
- 이정은 (2004). 우리 아이 나쁜 버릇 바로 잡기. 서울: 김영사.
- 임경옥, 이병인 (2010). 장애 영유아 발달 영역별 지침서. 서울: 학지사.
- 충청남도교육청 (2014). 2014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사랑채움 행복나눔 가이드북. 충남: 저자.
- 하정훈 (2016). 베베베베 119 소아과. 서울: 그린비.
- Durand, V. M. (2009). Sleep better! : a guide to improving sleep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정경미, 조성은 역. 잘 안 자는 우리 아이 다루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 Millar, D. C., Light, J. C., & Schlosser, R. W. (2016). The Impact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Intervention on the Speech Production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Research Review.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9, 248-264.
- Pepper, J., & Weitzman, E. (2004). It Takes two to Talk. The Hanen Centre, Toronto, Ontario.
- Scanlon, K. (2012). My Toddler Talks. Createspace, North Charleston, SC.
- Schlosser, R. W., & Wendt, O. (2008). Effects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Intervention on Speech Production in Children With Autism: A Systema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7, 212-230.
- Sussman, F. (2006). Talk Ability. The Hanen Centre, Toronto, Ontario.
- Sussman, F. (2012). More Than Words. The Hanen Centre, Toronto, Ontario.

- Williams, K. E., & Foss, R. M. (2009). Treating eating problem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 interventions for professionals and parents. 정경미, 이승아 역. 잘 안 먹는 우리 아이 다루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 참고 사이트

- 미국 언어청각협회 - <http://www.asha.org>
- 서울해바라기 센터 홈페이지 - <http://www.child1375.or.kr>
- 안전 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http://www.safe182.go.kr>
- (사례제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 - <http://www.1577-1330.or.kr>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http://www.broso.or.kr>
-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실종예방 교육매뉴얼(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 <http://www.childfund.or.kr>
- 피라미드 교육 컨설턴트(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 Pecs) - <http://www.pecusa.com>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 <http://www.at4u.or.kr>
- Tobii Dynavox(보완대체의사소통, ACC) - <http://www.tobiidynavox.com>

장애위험을 보이거나 실제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은 널려 있지만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나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들을 둔 어머니들께서 장애영유아 양육 가이드북 개발 필요성을 호소했고 국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요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30여명의 연구진과 6명의 연구보조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그리고 그 뜻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연구 과정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된 것으로 첫발을 내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어느 장애 영역까지 다룰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에서부터 심지어는 용어와 문체까지도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업이기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수 차례의 집필진 및 팀장 회의와 통해 의견을 모으고, 그레도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와 부모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독자층의 범주가 넓다보니 기술 내용의 난이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 누구에게나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책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편집 디자인과 삽화 제작 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가이드북 개발 사업은 장애인 자녀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이드북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자료들이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가이드북이 나오기까지 연구진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심층면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20명의 어머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400여명의 부모님, 자신의 자녀를 기른 경험을 수기 형태로 진솔하게 써주신 40명의 어머니, 세세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5명의 전문가 자문위원님, 전국 12개 지역 설명회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500여명의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귀찮은 일들을 기꺼이 도맡아 주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전국의 어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집필진을 대표하여 **김삼섭** 올림

- 연구책임자: 김삼섭 교수** |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연구·집필진(30명, 가나다순)**
- 강미애 교수 | 서울맹학교
  - 강민채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연구1팀장
  - 김기률 사무총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연구5팀장
  - 김성연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김수진 교수 |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 김원석 교수 | 충주 성심학교
  - 김정현 교수 |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집필3팀장(사각장애)
  - 김진경 교수 |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김재왕 변호사 | 희망을 만드는 법(공익인권변호사모임)
  - 김지훈 정책연구실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연구3팀장 및 집필6팀장(가족지원)
  - 나경은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연구2팀장
  - 서동수 진료부장 | 서울시립어린이병원
  - 서보순 교수 |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구4팀장
  - 서선진 교수 |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집필1팀장(발달장애 양육자서·정보)
  - 서은경 회장 | 전국장애인가족지원협의회
  - 송지숙 센터장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 유경미 센터장 |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유진선 학부모 | 이월병설유치원
  - 이미현 부회장 | 한국장애인부모회 청각장애분과
  - 이서욱 교수 | 충주성심학교

- 이원미 교사 | 서울누리학교
- 이정옥 회장 | 한국중증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임용재 교수 | 일북군마대학교 특수교육과\* 집필5팀장(지체장애)
- 정유진 학부모 | 성남성온학교
- 정은정 교수 | 인동과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최명진 센터장 | 대진동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최미점 교수 | 경민대학교 이동보육과\* 집필2팀장(발달장애 양육기술헌)
- 최상배 교수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집필4팀장(청각장애)
- 홍경훈 교수 |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협력 연구관

- 안상권 교육연구사 |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사업 지원

- 조경미 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업 출판 간사
- 서은주 운영지원국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윤진철 조직국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김나리 운영지원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박윤선 관리옹호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윤애영 대학원생 |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사업 수행 지원 기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 및 12개 시·도지부
-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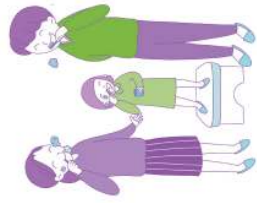
##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first page, consisting of 10 sets of three horizontal lines (top solid, middle dashed, bottom solid) in alternating green and purple colors.



##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second page, consisting of 10 sets of three horizontal lines (top solid, middle dashed, bottom solid) in alternating green and purple colors.



##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top section of the page. The section contains 18 rows of lines, each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The first 16 rows are yellow, and the last 2 rows are pur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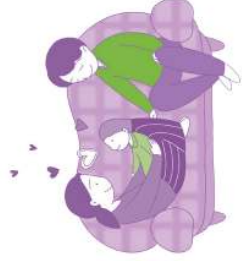
##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bottom section of the page. The section contains 18 rows of lines, each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The first 16 rows are yellow, and the last 2 rows are purple.



##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first page, featuring alternating solid and dashed lines.



##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second page, featuring alternating solid and dashed lines.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발행인** 국립특수교육원장 우이구

**발행처** 국립특수교육원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www.knise.kr  
T. 041-537-1500 F. 041-537-1450

**디자인**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02-518-1571  
www.credada.com

**ISBN** 978-89-6095-597-4 94370  
978-89-6095-595-0 (세트)  
<비매품>